202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8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20. 8. 20(목), 14:00 ~ 17: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김봉렬, 김정희, 김창준, 윤균(오심), 이경미,
이정수, 임영애, 전봉희, 정명섭, 천득염
(이상 10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의성 고운사 연수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공개
2	영주 가흥동 마애여래삼존상 및 여래좌상 주변 연립주택 신축(재심의)	공개
3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주변 관광지 조성사업	공개
4	천안 봉선홍경사 갈기비 주변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공개
5	서울 홍인지문 주변 전통문화 체험공간 조성	공개
6	여수 흥국사 대웅전 주변 템플스테이 체험관 건립(2차)	공개
7	완주 송광사 대웅전 주변 요사채(향로전) 이전 건립(재심의)	공개
8	이천 영월암 마애여래입상 주변 삼성각 보수 및 주변정비	공개
【검토사항】		
9	평창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 상륜부 해체보수공사 추가 재검토	공개
【보고사항】		
10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 - 안동 이천동 마애여래입상 주변 진입로 개설(변경허가) - 청송 대전사 보광전 주변정비사업(석축, 계단 공사) - 청도 석빙고 주변 도로 신설 -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주변 도로 확·포장 공사(양성화) - 홍천 물걸리 석조여래좌상 등 주변 물걸리 굼벵이 사육장 조성 - 전주 풍패지관 주변 업무·숙박시설 건립(재허가) - 고흥 능가사 대웅전 주변 팔영산 탐방지원센터 개축 -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주변 아파트 옆(소로1-48호) 도로 개설 - 고창 선운사 대웅전 등 주변 불교용품점 신축 -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주변 임목 벌채 - 상주 양진당 주변 가설건축물(창고) 설치 - 산청 율곡사 대웅전 주변 공양간 보수	공개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주변 문화재 안내소 건물(창고) 증축
- 구례 연곡사 소요대사탑 주변 금선암 요사채 건립(3차 변경허가)
- 여주 신륵사 조사당 국고보조사업(신륵사 설법당 건립) 검토(5차 변경)
- 여주 신륵사 조사당 주변 천송～신남간 도로 확·포장 공사
-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주변 관광종합안내소(가설건축물) 위치 변경(2차)
- 포항 보경사 원진국사비 주변 계류보전 사업
- 공주 갑사 승탑 주변 템플스테이 전용관 건립(변경허가)
- 안동 이천동 마애여래입상 주변 전통문화공원 조성사업
- 안동 봉정사 극락전 주변 요사채 담장보수 공사
- 옥천 용암사 동·서 삼층석탑 주변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
- 고흥 능가사 대웅전 주변 농어촌도로(311호선) 확포장공사
- 장성 백양사 소요대사탑 주변 내장산 국립공원 탐방로 개선공사
- 고창 선운사 대웅전 등 주변 선운사 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계 복원 사업
- 여수 진남관 주변 전라좌수영 동헌～여수공고 도로확장 공사
- 철원 도피안사 삼층석탑 주변 창고시설 신축
- 충주 억정사지 대지국사탑비 등 국가지정문화재 탁본

【심의사항】

안건번호 건축 2020-08-001

1. 의성 고운사 연수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 제안사항

경북 의성군 소재 「의성 고운사 연수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북 의성군 소재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70호 「의성 고운사 연수전」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항은 2020년 건축문화재분과 제6차 회의(2020.06.18.)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예고기간('20.06.25.~'20.07.24.)동안 별도의견 없었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경상북도지사

(2) 대상문화재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70호 「의성 고운사 연수전(義城 孤雲寺 延壽殿)」

○ 소재지 :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 415(구계리 116)

○ 지정일 : 2013. 04. 08.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 칭 : 의성 고운사 연수전(義城 孤雲寺 延壽殿)

○ 소재지 :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 415(구계리 116)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고운사(대한불교조계종 고운사)

○ 시대/연대 : 조선시대

○ 수량 : 1동

○ 지정면적 : 78.8㎡(보호구역 1,053.6㎡)

○ 구조/형식/형태 : 이익공/ 5량가/ 정3칸, 측3칸/ 回자형/ 팔작지붕, 겹처마

○ 재질 : 목재, 한식기와

라. 현지조사의견(2019.12.20.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붙임 참조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9명, 제척 1명

[붙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조사보고서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2.29.>

(앞쪽)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9.12.20.	대상문화재	의성 고운사 연수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 470호)	
조사자	성 명	○ ○ ○	전공 분야	건축사
	소 속		직위(직책)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의성 고운사 연수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시도유형 문화재구역과 동일
		<보호물>
		<보호구역> 시도유형문화재 보호구역과 동일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 년 4 월 28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의성 고운사 연수전은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고은사길 415(구계리 116) 대한불교 조계종 고은사 경내에 위치한다. 고운사는 의성 읍내에서 북쪽으로 직선거리로 약 12km 정도 떨어진 등운산(騰雲山)의 서쪽 골짜기에 자리하고 있다. 단촌면은 의성군의 북부에 자리하고 있으며 북으로 안동시 남선면, 서로 안동시 일직면, 동으로 안동시 임하면과 접하는 등 안동시와의 경계부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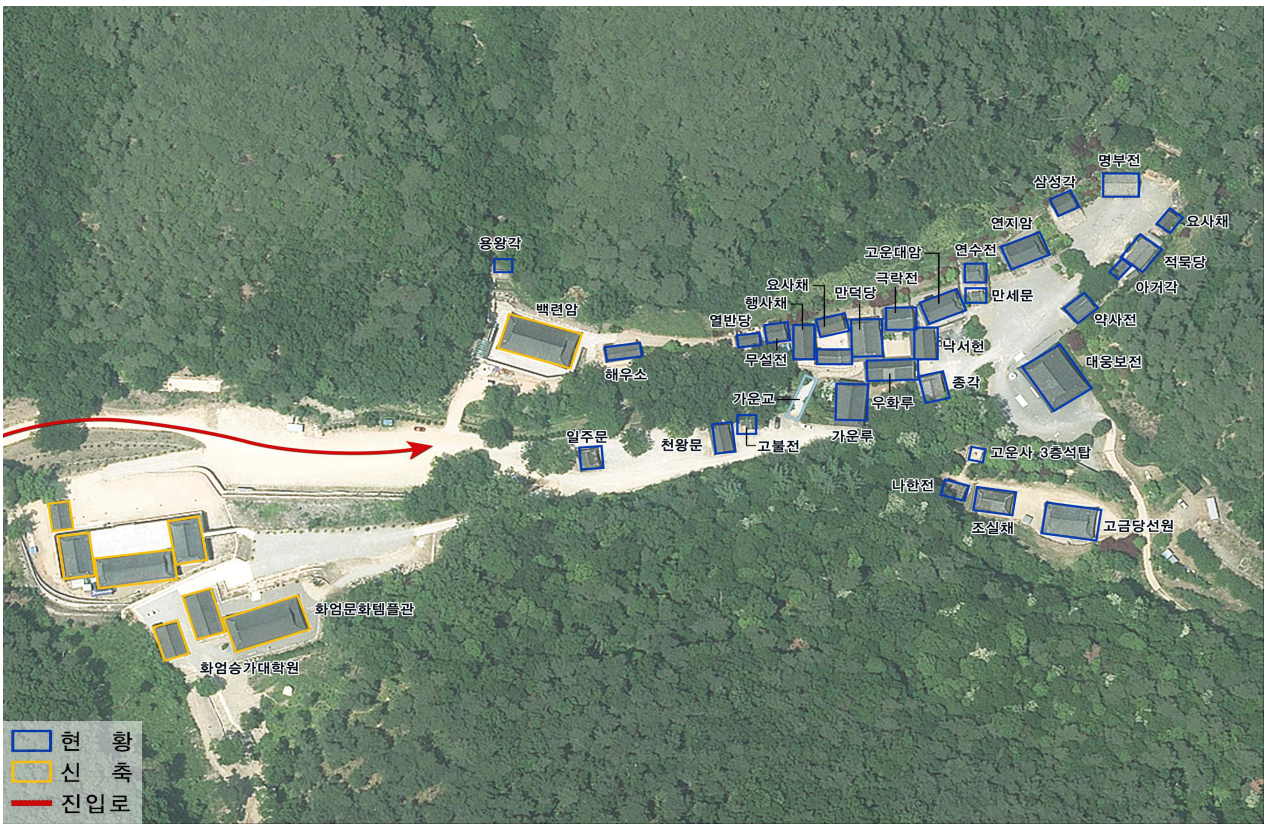

그림 1. 2017년 현황 (『의성 고운사 연수전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의성군, 2019, 이하 『보고서』)에서 전재)

고운사는 신라 의상대사의 창건이라 전하며, 현재의 이름은 신라말의 대학자 최치원의 字에서 따온 것으로 전하고 있다. 또한 사찰측의 기록에는 고려초 도선국사의 중창이 있었다고도 한다. 현재 남아있는 목조건축물은 모두 조선 후기 이후의 것들이지만, 경내에는 오래된 절의 역사를 증거하는 유적들이 다수 남아 있다. 즉, 보물 제 246호로 지정된 '의성 고운사 석조여래좌상'(약사전 내)과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 제 23호로 지정된 '고운사 삼층석탑' 은 통일신라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늦어도 이 시기에는 사찰이 경영되었음을 확인하게 해준다. 이외에도 여러 차례의 중수를 거듭하여 근래에 만들어진 '의성 고운사 가운루'(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51호)와 이번에 승격 지정의 대상이 되는 연수전(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70호)이 지정 문화재이다. 금석문으

로는 '李容準 영세 불망비'(咸豐九年 - 1859년 4월 건립), '海東 朝鮮國 涵弘堂 대선사비'(崇禎紀元後五乙酉 - 1879년 9월 건립), '등운산 고운사 사적비'(世尊應化二千九百四十五年 - 1918년 7월 건립), '수월 대선사비'(世尊應化二千九百四十六年 -1919년 3월 건립) 등 4기의 비석이 있다. 이용준 영세불망비(1859년)는 현령 이용준의 공덕을 기린 철제비로서, 수령의 불망비가 사찰 경내에 세워져 있다는 점, 그리고 드문 형식인 철제비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억할만하다.

고은사의 사찰 가람배치 형식에 대해서는 선행의 연구가 있어 참고가 된다. 우선 대개의 주요한 사찰 건물들은 1887년의 『고운사 중수기』에서 전하는 내용이 현황과 일치하여, 늦어도 이 시기 이전에는 현재와 비슷한 가람 배치를 갖추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사찰이 자리한 구역은 상류로부터 두 개의 작은 골짜기가 합해지는 합수구 부근이다. 마치 Y자 모양의 골짜기가 동서로 가로 누운 형상인데, 골짜기의 북쪽에 자리한 남사면을 따라 주불전인 극락전과 명부전 등의 부불전, 승방 등이 길게 늘어서 띠 모양의 중심 건축군을 형성하고, 두 지류가 만나서 이룬 가운데 오목한 부분에는 모니전(1992년 대웅보전으로 개창)을 중심으로 한 또 하나의 건축군을 형성하고 있다. 중심 건축군이 대개 남향을 하고 있는데 반해 대웅보전 일곽은 지형을 좇아 서남향을 하게 된다. 두 지류 사이에 위치한 모니전(대웅보전) 구역은 불전의 위격이나 입지한 지형의 조건 등으로 볼 때 처음부터 극락전과 함께 두 개의 중심 신앙공간을 이루었다고 보여지며, 통일신라 시대로 비정되는 삼층석탑은 모니전에서 다시 지류를 건너 남쪽 산등성이에 위치하여 Y자의 물길로 갈라진 3개의 구역 가운데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 각각 극락전 구역, 대웅보전 구역, 삼층석탑 구역이라 칭할만하다. 선행의 연구에서 김봉렬은 이를 신앙 공간의 구성을 중심으로 간단히 극락전과 명부전, 봉안각 등이 이루는 북원과 대웅보전과 삼층석탑 등이 이루는 남원으로 이분하였다.[1)]

가람의 중심 구역으로 진입하는 영역에는, 계곡의 흐름과 직각으로 서향으로 자리한 일주문, 천왕문, 가운루(駕雲樓) 등의 건물이 있다. 이 가운데 가운루는 계곡을 건너질러 자리하고 있어서 계곡 남쪽의 진입로에서 계곡 북쪽의 사찰 중심영역으로 건너가는 통로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 가운루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 후술할 연혁에 등장하는 것처럼 최치원이 세웠다는 같은 이름의 정자일 것이라고 추정된다는 점과, 극락전 중심의 북원과 모니전 중심의 남원을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운루는 그 아래로 흐르는 계곡 위에 높이 자리하고 있어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경관을 이루고 있다. 현재의 건물은 20세기에 중건한 것이지만, 이미 18세기의 기록에 '1668년에 지은 駕虛樓'에 대하여 "樓在寺前 複澗合流處 夾兩岸而立層楹 其上 迫

1) 김봉렬, '고운사 건축의 집합유형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3권 2호. 1994.

架空碧 嶠崒曠朗 是爲 仙眞之居"라 하여,[2] 비록 이름은 다르지만 현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누각이 당시에도 충분히 주목을 받으면서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계곡을 가로질러 세워진 가운루의 모습. (2019년 12월 20일 촬영)

극락전은 4동중정형의 배치를 가져 좌우로 길게 늘어선 다른 전각, 요사들과 구분되는 독립된 영역을 구성하고 있다. 즉, 극락전의 전면에는 계곡에 면하여 우화루(雨花樓)가 자리하였고, 향좌로는 만덕당이, 향우로는 낙서헌(樂西軒)이 자리하여 가운데 마당을 중심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다. 이 북부 구역에 17세기가 되면 좀 더 상류쪽으로 명부전 등의 부불전이 들어서고, 18세기에는 극락전과 명부전 사이에, 숙종의 기로소 입소를 기념하는 御帖奉安閣이 세워지는 등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유지된다. 후술하겠지만, 어첩봉안각의 위치는 현재의 연수전 자리로 생각된다.

극락전 구역이 가람의 가장 기본적인 건축 구역으로서 창건초기부터 계속해서 사찰의 중심을 이루어왔고, 큰 배치의 측면에서 일관된 경관을 유지하는데 반하여, 대웅보전 구역과 삼층석탑 구역은 근래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불사가 활발하게 일어나 모니전을 삼층석탑 뒤로 옮기고 그 자리에 대웅보전을 새로 크게 중창하였으며, 적묵당과 약사전, 고금당선원 등을 새로 지었다. 사찰내 유일한 국가지정 문화재인 석조여래좌상은 이때 새로 지은 약사전 안에 모셔져 있다. 2005년 이후로는 사찰 입구에 승가대학과 템플스테이관 등의 대형 시설군이 자리하게 되어 사찰의 진입 경관이 크게 바뀌었다.

2) 『고운사 사적비』(1729) (비문의 해독은 자료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여기선 『의성 고운사 연수전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의성군, 2019)에서 재인용.)

2. 연혁

고운사의 연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문헌자료와 금석문으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① 『고운사 사적비』 (1729년, 申維翰, 문장가, 당시 평해군수)
② 『고운사 중창기』 (1842년, 조실 商峯 宗皓 - 1839~1840년에 있었던 불사를 기록)
③ 『고운사 중수기』 (1887년, 金始五 - 1885년의 중수를 기록)
④ 『고은사 사적비』 (1918년, 吳致昇)
⑤ 『등운산 고운사 사적』 (1918년)

또, 연수전의 건축과 관련되어,

⑥ 『연수전 기문』 (1903년)
⑦ '연수전' 편액의 연기 ('光武八年 八月', 1904년 8월)
⑧ 연수전 배면 상단 벽화의 연기 ('歲甲辰春', 1904년)

등이 있으며,
이외에 '甲子年二月'의 명문을 갖는 망와와 '佛紀二九六二年'(1935년)명의 망와를 지붕에서 볼 수 있다.

먼저 고운사의 전체 연혁에 대해서 살펴보면, 고운사는 신라 의상대사(625~702)의 창건(①의 사적비), 혹은 창건주의 이름 없이 신라시대의 창건이라고 전한다(③의 중수기). 1918년에 기록된 ④의 사적비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신라 문무왕 16년(676)에 발의하여 신문왕 원년(681)에 고운사를 창건하였다고 더욱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더 늦은 기록에 더 자세한 정보가 있어 의아하다. 경내에 남아있는 삼층석탑과 석조여래좌상이 모두 9세기경으로 편년을 하고 있으므로, 보수적으로 보아 9세기 이전에 창건되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또, ①의 사적비에 道詵(827-896)이 '藥師石佛'과 '數層浮屠'를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④의 사적비에서는, 憲康王대(875~886)에 先覺國師(도선)가 '藥師石佛'과 '五層石塔'을 세웠다고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은 현재 사찰내 남아있는 석불 및 석탑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석탑에 대해선 1729년의 기록에는 층수를 특기하지 않았으나, 1918년의 기록에는 3층을 5층이라고 잘 못 기록한 셈이 된다.
④의 『고운사 사적비』는 또 이어서, 최초 의상이 건립한 절의 이름은 高雲寺였으나, 文昌公 崔致遠(857~ ?,908년 이후)이 법사 如智, 如事와 함께, '駕雲', '羽化' 2개의 루를 짓고, 현재와 같이 孤雲寺로 개칭하였다고 전한다. 고운루와 우화루가 현재도 사찰 내에 이름이 남아있는 것은 이미 언급한 대로이다.
고려시대와 조선전기의 상황에 대해서는, 위의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매우 소략하게 처리되어 있다. 반복해서 등장하는 일은 고려초에 雲住 화상이 중수하였다는 기록, 송나라의 天祐선사가 사찰의 면모를 일신하였다는 기록 등이 등장한다. 한 가지 어색한

부분은, ①의 사적비가 위의 도선국사의 일을 이들 고려초의 불사 이후에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개 사적을 기록하면서 시간 순을 따르는 것을 고려한다면 무언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의 사적비는 이번에도 좀 더 상세한 내력을 전하는데, 도선의 일은 신라말의 헌강왕대의 일로 특정하고, 고려초의 불사 역시 고려 태조 때 雲住화상과 照通 화상의 일로, 그리고 天佑는 고려 현종 무오년(1018년)의 일로 기록하고 있다. 분명 ④의 기록은 앞선 ①의 기록을 참고하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선 지나치게 정밀하여 그 근거가 의심스럽기도 하다. 송나라 승려라는 天佑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조선전기 태종의 대에 존속된 88개 사찰, 그리고 세종대에 훼철을 면한 36개의 사찰 가운데 이름이 남아있지 않은 고운사가 다시 활력을 찾는 것은 전란의 후인 17세기의 일이다. 기록에 남아있는 중수 및 중창 불사의 기록만 하여도, 구체적으로는 현종9년(1668)~현종11년(1670) 사이, 숙종 21년(1695)~숙종 22년(1696) 사이, 경종 4년(1724), 영조 20년(1744)~영조 25년(1749) 사이, 정조 21년(1797), 그리고 순조 3년(1803)~순조 4년(1804) 사이, 헌종 1년(1835)~헌종 8년(1842) 사이, 고종 5년(1868), 고종 22년(1885), 그리고 대한제국기에 들어서 광무3년(1899), 광무 5년(1901), 광무 6년(1902) 등 후대로 갈수록 빈번하게 불사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영조 5년(1729) 사찰측의 거듭된 요청으로 당대의 명문장가인 申維翰이 사적비의 비문을 지어준 사건은 현종대 이래로 활발해진 중창 불사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격을 높이는 일련의 노력을 마무리한다는 성격이 강하게 느껴진다. 이 시기 고운사는 경상북도의 중부와 북부 지방을 대표하는 사찰로 성장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며, 그러한 사찰의 위상을 다지는 계기가 영조 20년(1744)에서 25년(1749) 사이에 이루어진 영조의 기로소 입소를 기념하는 '어첩 봉안각'과 '기로소 봉안각'의 건립이었을 것이다. 1918년 같은 해에 작성된 2개의 기록에 서로 다른 이름과 다른 시기로 등장하는 이 두 개의 건물은,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기능이 같은 건물로서 한 건물을 서로 다르게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사건은 고운사가 왕실 원찰로서의 사격을 갖춤으로서 이후로도 계속되는 빈번한 불사의 바탕이 되었음은 분명하다. 앞서 언급한 1859년 건립의 '현령 이용준 영세불망비'가 철비로 사찰 내에 세워지는 것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능한 일로 보여진다.

무엇보다 영조의 기로소 봉안각 건립은 1902년에 있었던 고종의 기로소 입소를 기념하는 두 번째 원당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렇듯 거듭된 기로소원당의 건립으로 두텁게 된 고운사의 위상은 이후 일제강점기에 본말사 체제를 갖추어나가는 과정에서 36본산(1924년 이후 31본산) 중의 하나로 지정되는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31본산 가운데 경상북도에서는 대구의 동화사, 경주의 기림사, 영천의 은해사, 문경의 금룡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고운사는 의성은 물론 안동과 봉화, 군위 등을 대표하는 사찰로 성장

하게 된다.

이렇듯 고운사의 사격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기로소 원당은 왕실 원당 가운데 하나로서 특별히 국왕의 기로소 입소를 기념하여 왕과 왕실의 장수 발복을 기원하는 원당이다. 기로소는 원래 70세가 넘는 정2품 이상의 문관을 우대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이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이래 실행되었다. 한편, 국왕의 경우 60세를 넘으면 기로소에 입소하는데, 이런 우대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에 걸쳐서 기로소에 입소한 왕은 태조, 숙종, 영조, 고종의 4명에 그친다. 태조(1335-1408, 재위 1392~1398)는 60세가 되는 1394년에 기로소에 입소하였고, 이후 300여 년간 사례가 없다가, 숙종(1661-1720, 재위 1674~1720)이 1719년 59세의 때에 한 해를 앞당겨 세자와 종친의 청을 받는 형식으로 논란 끝에 기로소에 입소함으로써 국왕의 기로소 입소가 재개되었다.[3] 다행히 숙종은 그 다음 해까지 재위에 있어 면목을 세웠다. 이때의 행사 내용을 담은 『耆社契帖』(1720)이 여러 본 전한다.
기로소 입소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왕은 영조(1694-1776, 재위 1724~1776))로서, 그는 51세가 되던 1744년에 '望六旬'라 하여 무리를 하여 기로소에 들었을 뿐 아니라,[4] 재위 중 12차례나 기로소를 방문하였다. 위의 고운사 연혁에 등장한 '어첩 봉안각'과 '기로소 봉안각'은 이때의 영조의 기로소 입소를 기념하여 세운 원당이다. 즉, 영조 20년(1744) 영조의 기로소 입소를 기념하여 왕실의 계보를 적은 어첩을 봉안하기 위해 '어첩 봉안각'을 세웠다는 사실이 ④의 사적비에 전한다. 1744년은 마침 갑자년이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甲子年二月' 명의 망와가 이 시기에 만든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에서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5] 또 같은 해에 기록된 ⑤의 사적에는, 영조 25년 己巳(1749)에 '기로소 봉안각'을 세우고 名帖을 만들어 봉안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같은 해에 만들어진 이 두 개의 기록에서 이름과 시기가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점이 어색하지만, 이름이 의미하는 바와 기능을 고려할 때 기로소 봉안각과 어첩 봉안각은 서로 같은 건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며, 건립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생각하면, 1744년 영조의 기로소 입소를 기념하여 그 어첩봉안각이 5년 후인 1749년에 건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영조 이후 150여년 만에 다시 기로소에 든 왕은 고종(1852-1919, 재위 1863-1907)으로

---

3) 이용운, '조선후기 사찰에 건립된 기로소 원당에 관한 고찰', 『불교미술사학』 제3집, 2005. 참조

4) 영조의 '망육순' 기로소 입소는 당시에도 문제가 되었다. 선왕 가운데 太宗(52세), 世宗(54세), 世祖(52세), 中宗(57세), 宣祖(57세), 仁祖(54세)가 모두 '망육순'을 넘겼으나 아무도 기로소에 입소하지 않았던 선례가 걸림돌이 되었다.

5) 하지만, 영조의 기로소 입소 논의가 시작된 것이 1744년 8월의 일이기 때문에 사리에 맞지 않다. 다른 갑자년이거나, 혹은 다른 건물에 사용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서, 고종 역시 영조의 예를 쫓아 망육순이 되는 1902년 기로소에 들어가고, 마침 이 해는 즉위 4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 또한 나라의 위격도 제국으로 바뀐 다음이었기 때문에 더욱 성대한 의식들이 벌어졌다. 서울에서는 기로소 인근의 황토현에 '대한제국 대황제 보령 망육순 어극 사십년 칭경 기념비(大韓帝國大皇帝寶齡望六旬御極四十年稱慶紀念碑)'를 세우고 '기념비전'(1903년, 사적 제171호)을 건립했으며, 지방에서도 고운사 외에 순천의 송광사에도 聖壽殿을 세웠다(1903년).[6] 또 평양에 황제의 행궁인 풍경궁을 착공한 것도 이때의 일이고, 탑골공원에는 팔각정(서울시 유형문화제 제73호)을, 원구단에는 석고전(1903년)을 세웠다. 그러나 곧 이어 발발한 러일전쟁의 와중에 이들 공사는 순조롭지 못하여, 풍경궁은 결국 완공을 보지 못한 채 1907년 자혜의원으로 전용되었으며, 석고전의 석고는 1909년에 가서야 완성되어 제자리에 들어가나, 그 마저도 일제시기를 넘기지 못한다.[7]

송광사 성수전은 1957년 옛 관음전의 불상을 모셔와 관음전으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처음에는 1칸의 만세문도 함께 있었으나 1925년 훼철되어 현재는 전하지 않는다. 관음전은 현재 송광사 대웅보전의 향좌측 후면 한 단 위에 자리 잡고 있으며,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단층 팔작 다포집이다. 용도는 바뀌었지만 과거 기로소 원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증거가 곳곳에 남아있는데, 우선 내부의 간살이에서 대들보의 중간부에 두 개의 샛기둥을 놓고 어칸의 후반부를 감실처럼 만들고 바닥을 한단 들어 올려 봉안각처럼 꾸민 점, 내부의 벽을 중방과 샛기둥으로 네모지게 구획하여 상단에는 꽃과 나무, 괴석과 새 등의 그림을 그리고 하단에는 각 품계의 신하상을 그려 넣은 벽화, 그리고 전면 기단 앞에 있는 계단의 소맷돌 등이다. 특히 어칸의 후면 벽에는 마치 '일월오곡병'에서 보는 듯한 해와 달을 그려 넣어, 왕실과의 관련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왕실 고유의 장식 특성은 후술할 고운사 연수전에서 더욱 풍부하게 남아있다.

고운사 연수전의 건축 연대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1902년 고종의 기로소 입소를 맞아, 사찰 측에서 먼저 '영수각'을 별도로 짓고 기존의 (영조의) '기로소 봉안각'은 수리를 하겠다는 의견을 내었으나, 기로소에서 불허하였다. 이에 다시 이번에는 祝釐殿[8]을 짓겠다고 하여 다행히 기로소의 허락을 받아 1904년 축리전을 완성하였다. 이때 무슨 이유에서인지 고운사에서는 다시 축리전을 '영수전'으로 개명하겠다는 소를 올리고, 기

6) 이때 많은 사찰들이 앞 다투어 기로소 원당의 건설을 원하였는데, 그 허가 여부는 기로소의 次知 李炳鼎이 어떻게 奏達하는 바에 달려 있었다고 한다. (서치상, 김순일, '송광사 기로소원당의 조영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제5권 제6호(1989.12) 참조)

7) 허유진, 전봉희, '석고전의 마지막 이건과 소멸', 『대한건축학회논문집』제31권 제4호(2015.4) 참조

8) 祝釐는, 『史記』「孝文本紀」, "今吾聞祠官祝釐, 皆歸福朕躬, 不爲百姓, 朕甚愧之"에서 따온 말로, 국왕의 복을 비는 일을 말한다. 사찰의 중창에 왕실의 도움을 얻고자할 때 사용된 예로, 「오대산 상원사 중창 권선문」에도 같은 말이 등장한다.

로소에서는 '연수전'으로 이름을 내려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현재의 연수전이 축리전이라는 이름으로 1904년에 지어진 것은 확실하지만, 기존에 있던 영조의 기로소 봉안각과의 관계는 불분명하다. 즉, 1904년의 축리전이 기존의 기로소 봉안각을 개축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지은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후자의 경우라면 기존의 기로소 봉안각은 이후 어느 시기에 훼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904년 이후라는 근래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므로 기존에 있던 기로소 봉안각이 훼철되었다면 무언가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연구되어 있는 송광사 성수전의 건축 연혁과 최근 발굴된 고운사 연수전 건축관련 자료를 참조할 만하다. 이에 따르면 당시 기로소 원당의 건설은 왕실의 內帑金에 더하여 인근 관아의 지원과 사찰의 협조로 이루어지며, 송광사 성수전의 경우, 전체 공사비의 약 절반 못 미치는 정도를 내탕금으로 충당하였을 뿐이다.[9] 또 송광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운사의 경우에도 축리전을 건설하기 위해 인근 관아의 불용한 건축 부재를 옮겨오는 것을 허락을 요구하는 상황을 담은 자료가 확인된다.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단 기간에 두 개의 건물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까 짐작할 수 있다.

그림 3. 만세문과 담장으로 둘러싸인 구획 내에 있는 연수전 (2019년 12월 20일) 송광사 성수전에도 원래는 단칸의 '만세문'이 있었다고 한다.

또, 현재의 연수전 건축이 송광사의 성수전과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성수전과 연수전은 둘 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같은 칸수를 가지고 있으

9) 서치상, 김순일, 앞의 논문.

나, 성수전은 정면을 모두 같은 크기의 주칸으로 처리하여 옆으로 긴 직사각형의 형식을 갖는데 반하여, 연수전은 가로 세로가 비슷한 크기의 정방형에 가까운 형태를 갖는다. 기둥 사이의 간살이는 이후 성수전이 관음전으로 개축되는 과정에서 변형이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기둥 간격은 처음 건립 당시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고운사 연수전은 그 건축 형식이 숙종조 기로소 내에 세워진 어첩봉안각인 영수각과 닮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1904년 축리전을 짓고 난 이후 고운사 측에서 영수전이라 이름을 붙이겠다고 요구한 일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고운사 연수전과 기로소 영수각 사이의 형태적 유사성은 중간에 고운사 기로소 봉안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영조의 기로소 입소를 기념하는 기로소 봉안각은 당시 서울의 기로소에 있던 (숙종의) 영수각을 본떠서 만들었고, 고운사 연수전은 사찰 내에 있던 영조의 기로소 봉안각을 개축하는 형식으로 지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기로소의 영수각과 같은 형식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이상의 상황을 감안할 때, 비록 단언할 수는 없지만, 고운사 연수전이 이미 사찰 내에 남아있던 영조의 기로소 봉안각을 고쳐 지은 것으로 보는 것이 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건축 형식에 대한 질문과 상관없이, 현재의 건물은 1904년에 지어진 것은 분명하며, 이는 ⑥의 기문(1903년)과 '光武八年 八月'라 연기된 ⑦의 연수전 편액, 그리고 '歲甲辰春'이라는 연수전 배면 상단 벽화의 연기 등을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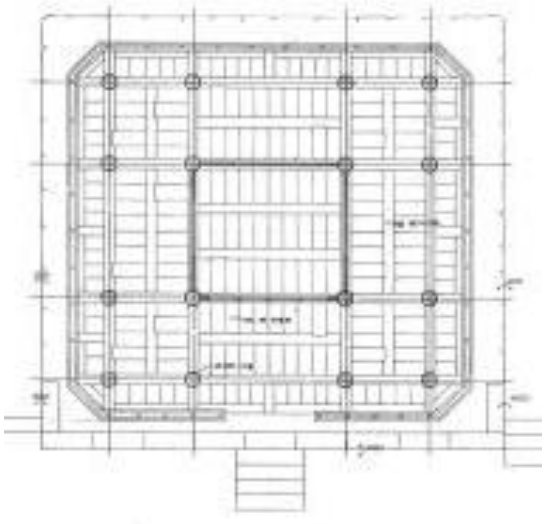

그림 4. 연수전 평면도 (『보고서』에서 전재)

그림 5. 그림 5 연수전 모습. 정면 3칸, 측면 3칸의 규에 가운데 칸을 구획하여 어첩 봉안각을 삼았고, 둘레의 퇴칸은 모두 개방하고 난간을 둘렀다. 경사지에 자리하여 전면에 3단의 기단 석축을 두었다. (2019년 12월 20일)

3. 건축적 특징

고운사 연수전은 '萬歲門'이라 편액된 정문과 낮은 담장으로 구획된 독립된 영역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3단의 가공된 장대석으로 쌓은 기단 위에 있는 단층 팔작집이다. 만세문은 단층의 장대석 기단 위에 서있는 3칸 솟을대문 형식의 문으로서, 전후열의 기둥은 모두 원기둥으로 하고 그 아래 초석은 모두 방형으로 하였는데, 초석의 높이는 전면과 후면, 어칸과 양 협칸에 따라 위계를 두어 다르게 처리하였다. 문짝이 달리는 중심주열은 방형 기둥에 낮은 방형 주초를 사용하였으며, 주초를 크게 하여 문둔테석을 겸하였다.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가운데 어칸을 한단 높이 올린 솟을삼문 형식을 취하고 있다. 세칸 모두 쌍여닫이 널판문을 달았으며, 전면에는 태극문양을 그려 넣었다.
연수전의 평면 구성은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거의 장방형에 가까운 크기(5.54m X 5.34m)를 가지며, 내부에도 외주열에 맞추어 4개의 내주를 두고 그 내주열의 둘레로 벽과 창호를 둘러, 내진과 외진이 동심원적으로 겹쳐있는 回자형의 구성을 갖는다. 외주열을 따라서는 정면 어칸의 가운데 부분만을 열어둔 채로 사방을 돌아가며 계자각의 난간을 둘렀을 뿐 벽체나 창호 없이 개방적으로 구성함으로써, 마치 가운데 방이 있고 사방으로 툭 터진 중재실형 장자와 유사하다.

기둥은 내외 16주 모두 두리 기둥이고, 외진 기둥 상단의 공포는 출목없는 2익공으로 짰는데, 익공의 초각은 초익공은 앙서로 하고 그 위에 연꽃을 초각하고, 이익공은 수서로 하고 그 아래 연봉을 초각하여 서로 대응하게 하였다. 특이한 점은 각 면의 어칸에 주간포를 두어 익공식 공포에서는 흔치 않은 다포식 공포 배열을 따랐다는 점이다.
어칸의 주칸은 전후면은 2.7m, 좌우면은 2.4m이고, 협칸은 모두 1.47m 이다. 주상포에서는 초익공 위에 주두를 두어 이익공과 두공첨차를 받치고, 이익공 위에 재주두를 두어 대들보나 충량을 받치고 있으며, 행공첨차의 양단 상부에 소로를 두어 장여와 도리를 받치고 있다. 주간포에서는 재주두가 없이 초익공, 이익공이 겹쳐 쌓이고, 대들보(충량)가 있을 자리에 삼익공에 해당하는 제공을 하나 더 두었다. 각 익공의 사이에는 화반을 두었으며 화반의 위로 두 개의 소로를 두어 장여를 받치고 있다.

그림 6. 기둥위의 2익공식 공포, 어칸에는 주간포를 하나 두었고, 익공 사이에는 화반을 두었다기둥 머리 위부터 지붕 가구와 천장 등에 시채된 금단청도 화려하다.(2019년 12월20일)

외진의 퇴칸에는 바닥에는 우물마루를 깔고, 천장에도 보의 허리부분에 맞추어 마치 우물마루를 깔듯이 귀틀을 두고 널판을 나란히 끼워 넣어 평천장을 꾸미고, 그 면에 봉황과 용, 구름 등의 단청을 하였다. 바닥의 높이가 기단 상면으로부터 겨우 40cm 정도 올라와있기 때문에 따로 섬돌은 두지 않았고, 바깥쪽 둘레로 있는 계자각 난간은 거의 기단 상면에 닿을 듯 내려와 있다. 계자각의 청판 아래로는 붉은 벽돌을 두 단 쌓아서 고맥이와 같이 처리하였는데 완전히 밀폐되지는 않고 틈이 있다. 처마는 사방 모두 겹처마로 하여, 원형의 서까래와 각형의 뜬서까래를 두었고, 모퉁이에서는 추녀와 사래를 두었다.
정면 2.7.m, 측면 2.4m 의 내진은 천장이 종보의 아래에 맞추어져 있어, 주위 퇴칸의 천장보다 69cm 높은 3.37m 의 높이를 가져, 좁고 높은 수직적인 공간을 이루었다. 전면에는 사분합문을 달고 나머지 삼면은 판벽으로 둘렀으며, 퇴칸의 천장과 마찬가지로 이 판벽에도 돌아가며 각 면에 벽화가 가득하다. 단청의 그림은 각 면이 다른데, 좌우 측벽에는 중방 위로 살창을 두어 그 아래 부분을 화면으로 사용하였고, 후면벽은 창이 없기 때문에 전체에 단청을 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후면벽에서는 중방을 작은 규격으로 사용하였는데, 단청에서는 좌우측 벽면의 중방 크기에 맞추어 중방을 같은 크기로 그려 넣었다는 점이다.

내진 봉안실의 전면에는 사분합문의 위에 '연수전'이라 편액하였고, 내부로 들어가면 후면벽에 중방 위로 감실을 만들어 어첩을 봉안할 수 있게 하였다. 벽감은 기둥과 보, 익공과 처마까지를 다 나무로 만든 작은 전각 모양을 하고 있으며, 벽감의 전면에는

기둥 사이에 사분합의 창호를 달고 내부의 천장은 소란반자를 짜서 달고, 내부 전체에 단청을 하였다. 위의 홍경모의 기록에 나오는 '彩龕'이 이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내진 봉안실의 천장은 퇴칸과 마찬가지로 우물마루를 짜듯 가로방향으로 두 개의 동귀틀을 걸로 널판을 깔아 평천장을 꾸몄는데, 뒤의 한 열은 벽감에 가리고 앞의 두 열에는 청과 황의 용이 서로 마주보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또 이 좌우의 측면벽 창방 상부에는 해와 달을 그려 넣어서, 이 공간이 왕실의 공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좌우의 측벽 중방과 창방 사에엔 가운데에 창을 한 짝씩 두었기 때문에 벽화는 창방의 위에 있다.

연수전은 최근에 개수한 것으로 보이는 난간 부분을 제외하고는 건물 전체 걸쳐 화려한 단청이 빽빽이 들어가 있다. 기둥과 보, 창방과 도리, 익공과 화반, 서까래와 부연 등에는 모두 금단청을 화려하게 장식하였고, 심지어 내진 안에 있는 벽감의 내외부에도 단청이 빠지지 않는다. 우선 외부의 단청은 모두 금단청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전면에 비하여 좌우의 측면과 배면은 좀 더 단순하게 하였다. 즉 창방과 도리 등의 수평재에 전면에서는 머리초와 계풍 모두 연화를 주제로 한 금단청을 하였으나, 좌우측면에서는 머리초는 좀더 간단한 연화문으로 그리고 계풍에는 간소한 얼금문으로 마감하였고, 후면에서는 계풍에 소나무와 괴석 등의 별지화를 그려넣었다. 화반도 위치에 따라 귀면문과 크고 작은 연화문 등으로 구별하여 단청하고 있다.
고운사 연수전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내외진의 천장 및 내진 벽의 내외부에 그려진 천장화와 벽화이다. 내진 봉안실 내부의 천장에는 쌍용문이, 좌우측 벽의 창방 위로는 해와 달을 그려 넣었다는 점은 이미 말한 대로이고, 내진 벽 바깥면 즉 퇴칸쪽으로는

그림 7. 전면 퇴칸의 천장에 그려진 두 마리의 용, 향우측 툇간의 천장에는 봉황이 보인다. (2019년 12월 20일)

그림 8. 중앙에 있는 봉안실의 천장 벽화, 구름 위에 두 마리의 용이 서로 마주보며 희룡하고 있다 (2019년 12월20일)

넓은 판벽면을 바탕으로 글씨와 그림이 가득하다. 향우측 벽에는 '龍樓萬世(창선 옆 중깃)', '富似海百千秋(중방)'이라 원글자가 구조재에 써있어서, 맞은 편 향좌측 벽의 같은

자리에 써있는 '鳳閣千秋(창선 옆 중깃)', '壽如山長不老(중방)'와 대구를 이루게 하였고, 중방 아래에는 각각 화제에 맞는 그림 (연꽃과 해, 거북 -향우측 벽, 용과 달 -향좌측 벽)이 그려져 있다. 용루와 봉각이란 용어로 보아 왕과 왕세자(고종과 순종)을 각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후면벽은 중간에 작은 중방이 있으나 단청으로 좌우측벽과 같은 크기로 중방을 그려넣고, 그 위로는 매화나무와 두 마리의 학, 영지버섯을, 중방 아래에는 해와 상상 속의 일각수, 소나무, 구름 등을 그려넣었다. 상하의 화면에 자유로운 필체로 쓴 화제가 달려있는데, 상면에는 '巡簷三月梅藹/笑華表千年鶴頂丹//歲甲辰春/識勝于/丹臒之/中'이라 하였고, 하면에는 '松壇忽風/一角獸馬蹄/竊身何物似//知有此間復見/乘平日月//聖上...'이라 하였다.

그림 9. 연수전 내진 후벽면의 화기(2019년12월 20일)

한편, 고운사 연수전의 건축 형식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부분이, 앞서 연혁에서 언급한 숙종조에 만든 기로소 영수각과의 유사성이다. 靈壽閣은 기로소 안에 있던 어첩 봉안각으로 숙종이 기로소에 입소하는 것을 계기로 새롭게 만들어졌다. 국초에 태조가 기로소에 입소한 이래 300년 이상 기로소에 입소한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동안 실행되지 않던 의례를 새롭게 시행하는데 따른 저항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태조의 예를 좇는다는 명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로소어첩』을 새로 만들고, 그 첫 장에는 태조의 휘호를 쓰고 두 번째 장에는 숙종의 휘호를 썼으며, 이를 봉안하기 위한 어첩 봉안각을 새롭게 짓기로 하였다. 洪敬謨(1774~1851)의 『耆社志』에 따르면 "1719년 2월 2일에 영의정(領議政) 김창집(金昌集)이 어첩을 서루의 구감(舊龕)에 봉안해야 하지만 감실의 벽이 허물어져 없으니, 누각을 종부시(宗簿寺)의 선원각(璿源閣)처럼 지어서 봉안하자는 계(啓)에 따라 같은 해 3월 18일에 건립하기 시작해서 3월 25일에 상량했다. 홍문관(弘文館)에서 각호(閣號)로 영수각, 만년각(萬年閣), 승휴각(承休閣)의 삼망(三望)을 입계했는데 이 중에서 영수각이 선정됐다. 우참찬(右參贊) 신임(申鉁)에게 편액을 쓰게 했고, 홍문관(弘文館) 제학(提學) 이관명(李觀命)에게 상량문을 찬하게 했다. 그 결과 6월 9일에 영수각이 만들어졌고, 어첩은 6월 24일에 봉안했다"고 한다.[10]

10) 『숙종실록』 45년 2월 10일. 조선왕조실록사전 http://waks.aks.ac.kr/rsh/dir/rview.aspx?rshID=AKS-2013-CKD-1240001&dataID=00017970@AKS-2013-CKD-1240001_DIC) 영수각(靈壽閣)조 참조.

건축에 관심이 많았던 홍경모 답게, 『기로지』에는 영수각의 건축에 대한 설명도 아래와 같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靈壽閣在 耆英館東 肅宗己亥新建 閣一間南向 中壁設彩龕 奉安御帖 前設分閤 四面前退 各半間 環以伏檻 階下置鹽水盆 於四甬(?) 繞之高墻 南有三間三門... (洪敬謨, 耆社志 卷一 甲編 館宇條)

이를 보면, 영수각은 기로소의 본전인 기영관의 동편에 있는데 1719년에 새로 지은 것이고, 1칸 규모로 남향을 하고 있고, 중간 벽에 彩龕을 설치하여 어첩을 봉안 하였으며, 앞에는 분합을 달고, 사방으로 퇴칸을 두었는데 각 반 칸 규모이다. 난간을 둘렀고, 기단 아래로는 사방으로 물항아리(드무?)를 네 통 두었다. 높은 담으로 둘렀으며, 삼문 3칸을 두었다' 고 하여, 지금 연수전을 그대로 그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연수전의 현황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주변에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물항아리가 없는 점 정도이다. 드무가 처음부터 없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또, 이러한 상황은, 『기사경회첩』(1744-1745)의 '영수각 친임도', 『기영각시첩』(1763), '영수각송'(1765), '친임선온도'(1765), 『임인진연도병』의 '어첩봉안도'(1902)등에서도 확인된다.

이상의 기록을 보면, 고운사 연수전은 1719년 숙종조에 건립한 기로소의 영수각과 같은 건축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종합 검토의견

의성 고운사 연수전은 1902년 고종의 기로소 입소를 기념하여, 1904년에 세운 기로소 원당으로서, 고운사 내에 있던 영조의 기로소 봉안각(1745-1749)의 전례를 쫓고, 기로소에 있던 영수각(1719)을 모범으로 세워진 대한제국기의 황실 기념 건축물이다. 기록이 분명치 않은 태조의 기로소 입소를 제외하고, 조선시대에 실제로 실행된 세 번의 국왕의 기로소 입소, 즉, 숙종, 영조, 고종의 기로소 입소 건과 모두 연결되어 있는 기로소 원당 건축으로서 가치가 높다.

고운사 연수전은 솟을 삼문 형식의 정문인 만세문과 사방으로 담장으로 사찰 내의 다른 구역과 구분되는 독립된 구획을 이루고 있으며, 왕실 건축의 전범을 쫓아 남향을 하고 있다. 본전 건물은 3단의 다듬은 돌 석축 위에 있으며, 정면3칸 측면3칸의 단층 팔작집으로, 정면의 길이가 5,64m, 측면의 길이가 5.34m로 거의 정방형에 가까운 크기를 가진다. 도리칸과 보칸의 어칸 크기가 각각 2.7m 및 2.4m로 한자 차이가 있을 뿐 사방의 협칸은 1.47m로 모두 동일하다. 한 가운데 자리한 중앙칸을 어첩 봉안실으로 삼아, 정면에 사분합문을 달고 나머지 삼면을 판벽으로 막아 回자형 공간을 구성하고,

내진의 후벽 상단에 분합문을 단 벽감을 만들어 이곳에 어첩을 봉안하였다. 봉안실 둘레로는 사방을 개방된 퇴칸으로 구성하였으며 어칸 가운데 출입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면에 계자각 난간을 둘렀다. 12주의 기둥 모두 원주로 하였으며, 이익공식 공포를 사용하였는데, 각 어칸에는 주간에도 1구씩의 익공을 두고 있다. 기둥머리 이상의 부분에 화려한 금단청을 베풀었고, 어진 판벽의 내외부와 건물 전체의 천장에는 다른 곳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용과 봉, 해와 달, 학과 일각수, 소나무와 영지, 연과 구름 등 다양한 화재의 채색 벽화가 가득하다.
전체적으로 보아, 규모가 작지만 황실 건축의 격에 어울리는 격식과 기법, 장식을 가지고 있는 수준 높은 건축물이며, 그 기능과 건축 형식의 면에서 다른 예를 찾아보기 힘든 귀중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자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고운사 연수전이 국가지정 문화재(보물)로의 승격 지정에 적당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한다. 우선, 고운사 연수전은 조선시대 국왕의 기로소 입소를 기념하는 건축물로서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지금의 건물은 1904년에 만든 것이지만, 기록에 전하는 1719년 건립의 기로소 영수각의 형태를 잘 반영하고 있어서 18세기 당시의 기로소 어첩 봉안각 형식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될 뿐 아니라, 사찰 내에 먼저 있던 1749년 건립의 기로소 봉안각의 선례를 따른 것으로서 조선후기 왕실과 불교의 관계 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된다. 또한 고운사 연수전은에 있는 단청과 벽화와 매우 수준 높은 금단청의 사례일 뿐 아니라, 대한제국 황실을 상징하는 여러 도상들이 풍부하여 역사적 가치를 가지며, 같은 시기에 행해진 기념비전의 건축과 왕릉 비각의 형식 변화 등과 함께 대한제국기 황실 전범에 따른 전통적 기념비의 변화 상황을 증거하는 자료가 된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서, 퇴락의 상태가 심각한 벽화의 복원 및 보존이 시급이 요구되며, 이를 포함한 기로소 어첩 봉안각 건축에 대한 보다 정밀한 종합 조사가 필요하고, 나아가 연수전과 사찰의 관계 설정에 대한 관련자의 공의를 모아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2.29.>

(앞쪽)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9.12.20	대상문화재	의성 고운사 연수전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전통건축
		소 속		직위(직책)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문화재 명칭	의성 고운사 연수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 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 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 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시도유형 문화재구역과 동일			
		<보호물>			
		<보호구역> 시도유형문화재 보호구역과 동일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 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 년 6 월 10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1. 입지 현황 및 역사 문화환경 :

고운사는 경상북도 의성군 소재지에서 약 12km 북쪽에 자리한 단촌면 구계리 등운산 자락에 있다. 해발 624.2m로 이 지역 일대 진산 역할을 해 온 등운산은 남과 북 그리고 동쪽 능선이 모두 둥그렇게 연결되어 말발굽 형상으로 둘러싸인 반면 서쪽으로만 유일하게 개방되어 외부와 연결되는 형국이다. 따라서 골 안쪽으로부터 자연 계곡이 동서 방향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고 사역으로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접근로 역시 계곡을 따라 서쪽 방향으로 나 있다. 고운사는 이 등운산 계곡의 가장 깊숙한 안쪽에 위치하며 경사 산록의 지형에 맞춰 사역이 가로로 길게 형성되어 있다.

등운산 골짜기에서 모여 발원한 계류는 사찰 하부를 통과하기도 하고 앞을 가로지르기도 하면서 흐르고 마침내 사역 입구에 다다르면 북측 인근 갈라산에서 내려온 안망천과 합쳐진 다음 다시 낙동강 지류인 미천으로 흘러들고 있다.

의성에서 5번 국도인 경북대로를 타고 북쪽 안동 방향으로 약 14km 정도를 올라오다 망호리 부근에서 동쪽으로 난 79번 지방도로인 일직점곡로로 접어들면 고운사 입구로 향하게 된다. 이 길을 따라 곧장 약 8.3km 정도를 거슬러 오면 비로소 고운사 일주문에 다다르게 된다.

동서로 길게 펼쳐진 고운사 사역의 중간쯤에 주불전인 대웅보전이 위치하는데 이와 북측으로 마주하여 별곽으로 구성된 연수전 한 동이 자리하고 있다. 등운산 북측의 봉우리가 남으로 경사져 흘러내리면서 평지와 닿는 나지막한 경사지에 해당한다.

연수전(延壽殿)은 1744년(영조 20) 왕실 어첩을 봉안하기 위한 '어첩봉안각(御帖奉安閣)'으로 건립되었다가 수년 후 '기로소봉안각(耆老所奉安閣)'으로 개칭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어첩봉안각'과 '기로소봉안각'이란 전각명은 왕이 기로소에 입소하면서 어첩을 직접 써서 '영수각(靈壽閣)'에 봉안했던 행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동일 용도의 건물을 지칭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연수전은 영조의 기로소 입소를 기념하기 위해 왕실에 의해 세워진 영수각 기능의 원당 건물로 생각된다.

원당은 사찰 내 전각으로 죽은 이의 명복과 개인의 소원을 빌기 위해 별도로 건립되는 건물을 말한다. 조선 시대 왕실에 의해 지어진 원당은 능을 수호하기 위한 능침원당(陵寢願堂), 수명장수와 출생을 기원하는 축원원당(祝願願堂), 실록 수호 및 군사적 요지에 세워진 호국원당(護國願堂)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왕실의 현실적인 요구와 관계되는 축원원당이 가장 많이 건립되는 경향이 있다. 기로소 원당도 넓은 의미에서 재위 중인 왕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기 위한 축원원당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왕의 기로소 입소라는 단발성 국가적 행사를 계기로 건립되는 것인 만큼 일반적인 축원원당과는 다른 뛰어난 역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로소는 70세가 넘는 정2품 이상의 문관을 우대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로 행사 역시

기신(耆臣)들의 사적 모임이 대부분이었으나 종 종 국가적인 행사도 행해지기도 하였는데 국가행사의 최고 정점은 왕의 기로소 입소였다. 조선조 왕의 기로소 입소는 태조로부터 시작하여 숙종과 영조 그리고 고종 등 4명에 불과했지만, 그때마다 매우 중대한 국가행사로 거행된 바 있으며 70세 이상이 되어야 입소하는 기신과는 달리 태조는 60세에 입소했고 숙종과 영조, 고종 등은 태조보다 적은 나이로 기로소에 입소하였다.
이처럼 조선 시대 왕이 공식적으로 기로소에 입소한 예는 4번 밖에 없었으며 그 절차나 형식 등이 숙종 때에 들어서 확립되었기 때문에 사찰에 기로소 원당이 건립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숙종과 영조, 고종이 기로소에 입소한 것을 계기로 건립된 원당은 고운사 연수전과 송광사 성수전이 있을 뿐이다.[11] 그러나 성수전[12]은 1957년 이후 불전으로 용도를 바꾸어 버려 기로소 원당으로 온전하게 유지, 보존되고 있는 곳은 의성 고운사 연수전이 유일하다.
기로소는 영수각(靈壽閣), 기영관(耆英館), 기사도상첩봉안각(耆社圖上帖奉安閣), 수직관직소(守直官直所), 부군당(府君堂) 등 다수의 건물로 구성되는데 이 중 핵심건물은 어첩을 봉안하는 영수각이다. 기로소에 어첩을 봉안하는 일은 왕이 효교(孝敎), 경교(敬敎), 인교(仁敎)의 삼선(三善)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시되었고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금하여 높은 담장으로 두르고 경비가 엄중하였다.
조선 시대 기로소 체제와 왕의 입소를 정리한 책으로는 영조 연간에 발간된 『기사제명록(耆社題名錄)』과 헌종 대에 편찬된 『기사지(耆社志)』 등이 있다. 이 중 기사지(耆社志)』 권1의 갑편(甲編) 관우(館宇)에는 다음과 같이

"영수각은 기영관 동쪽에 있으며, 숙종 기해년(1719)에 새로 건립되었다. 각은 1칸으로 남향하고 있으며, 가운데 벽에 채감(彩龕)을 설치하여 봉안하였다. 앞에는 분합分閤(門)이 있으며, 사면은 각각 전퇴(前退)가 있고 계자난간이 둘러져 있다. 계단 아래에는 소금물항아리 4통을 두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져 있으며 남쪽에 삼문삼간(三門三間)이 있다."

영수각의 모습이 비교적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영조의 기로소 입소 행사를 그린 《기사경회첩(耆社慶會帖)》(1744~1745)의 〈영수각친임도〉와 《기영각시첩(耆英閣詩帖)》(1763), 〈영수각송(靈壽閣頌)〉(1765), 〈친임선온도(親臨宣醞圖)〉(1765) 등과 고종의 행사를 그린 《임인진연도

11) "영조가 기로소에 입소하기 한 해 전 1743년에 영조 비인 정성왕후가 경기도 안성에 성수각을 창건하고 영조의 원당으로 삼았다고 한다."는 내용이 권상로의 『한국사찰전서』하권, p.1024에서 확인되나 이 원당은 기로소 원당이라기보다는 왕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위축원당으로 판단된다.

12) 순천 송광사 성수전(順天 松廣寺 聖壽殿) : 1903년(광무 7) 고종이 망육(望六) 51세에 기로소(耆老所)에 입소한 것을 기념하여 건립된 원당(願堂)으로 현재 관음전으로 사용되고 있다.

병(壬寅進宴圖屛)》(1902), 〈어첩봉안도(御帖奉安圖)〉(1902) 등에 비교적 자세하게 그림으로도 표현되어 있어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기사경회첩》의 〈영수각친임도〉를 보면 담장으로 구획된 별곽 내에 위치한 건물을 볼 수 있는데 한 칸 실을 중심으로 사방에 계자난간만 있는 개방된 퇴가 설치된 모습이며 실의 전면은 개방된 반면 나머지 삼면은 벽으로 막혀 있다. 특히 실 내부 모습도 그려져 있는데 내부 안쪽 가운데 용상(龍床)처럼 생긴 채감이 설치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모습은 《기영각시첩》과 〈영수각송〉, 〈친임선온도〉 등에도 동일하게 그려져 있다. 다만 고종의 기로소 입소 때 그려진 〈임인진연도병〉은 채감의 장막과 궤안, 담장의 휘장 등이 황제를 상징하는 황색으로 바뀐 점만 다를 뿐이다.
문헌 사료와 도첩(圖帖) 상에 표현된 이러한 모습은 현 고운사 연수전의 형식과 완벽하게 일치된다. 건물 가운데 위치한 1칸의 방과 함께 전후좌우 사방이 개방된 툇마루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채감이 설치되는 등 건축의 세부 형식만이 아니라 담에 둘러싸인 별곽 내에 위치하는 등 대부분이 그림과 같다. 따라서 고운사 연수전 건물이 애초부터 기로소 영수각 형식으로 지어졌음을 문헌과 사료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연수전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유일한 기로소 원당 건물로 그 형식이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볼 때 역사·문화 및 건축적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연혁·유래 및 특징

○ 연혁과 유래 :

- 고운사 연혁 및 유래 : 고운사 창건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 사찰 연혁을 기록한 관련 사료들[13]의 연대가 비교적 늦어 창건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고 내용도 모호한 것이 많기 때문이다.
〈고운사사적비〉(1729), 〈고운사중수기〉(1887) 등에는 고운사가 의상(義湘, 625~702)에 의해 개창되었다[14]는 내용과 신라 시대에 창건되었다는 단순한 내용[15]만 있을 뿐 정확한 창건 연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1918년에 제작된 〈고운사사적비〉에만 "신라 문무왕(文武王) 16년(676)에 의상국사(義湘國師)가 교지를 받들어.... 중략.... 신문왕

13) 고운사의 내력이 기록된 자료로는 〈고운사사적비(孤雲寺事蹟碑)〉(1729), 〈고운사중창기(孤雲寺重刱記)〉(1842), 〈고운사중수기(孤雲寺重修記)〉(1887), 〈고운사사적비(孤雲寺事蹟碑)〉(1918), 〈등운산고운사사적(騰雲山孤雲寺事蹟)〉(1918) 등이 있다.

14) 聞韶縣北四十里有騰雲山山有孤雲寺…新羅祖師義相卓錫而開是寺…

15) 韶之北一舍許有騰雲山孤雲寺卽江左之有名伽儖而刱於羅代者也…

(神文王) 원년 신사년(辛巳年, 681)에 고운사(高雲寺)를 창건하였다."[16]라 하여 유일하게 681년이란 연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그대로 고운사의 창건으로 믿기에는 다소 근거가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통일신라 양식으로 평가되는 고운사 3층 석탑과 9세기 것으로 보이는 석가여래 석조 좌상이 사찰 내에 위치하고 사적비 및 중창과 중수기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운사의 창건을 늦어도 통일신라 시대 이전으로 올려다볼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 사료들에는 고려 시대를 거쳐 오면서 운주화상(雲住和尙)과 조통화상 그리고 천우(天祐)선사 등 몇몇 승려들에 의한 고운사 중건과 중수의 과정 등이 기록되어 있으나 모두 일신, 중건, 정비 등 개괄적으로 표현되거나 단편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자세한 내력을 추정하기에는 다소 불충분하다. 중수·중건의 기록이 사료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기는 조선 시대 중기인 1668년대부터이다.

1668년 이후 고운사 중수·중건에 관한 기록을 시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668년(현종 9) : 가운루 중수 및 천왕문(천왕전)과 봉황문 건립
- 1670년(현종 11) : 시왕전, 아거각, 명부전 건립
- 1683년(숙종 9) : 팔상전 건립
- 1695년(숙종 21) : 선당, 승당, 동상실, 서상실, 청풍당, 적묵당 중수 및 신축
- 1695년(숙종 21) : 화재로 인해 선당, 적묵당, 동상실, 서상실, 청풍당, 문수전, 양로전 소실
- 1696년(숙종 22) : 적묵당, 서별실 중건
- 1715년(숙종 41) : 화재로 인해 대웅전, 금당, 관음전, 백련당 소실 후 대웅전, 금당 중건
- 1724년(경종 4) : 운수암 건립
- 1744년(영조 20) : 어첩봉안각 건립
- 1749년(영조 25) : 기로소 봉안각 건립
- 1797년(정조 21) : 백련암 운수암 중건
- 1803년(순조 3) : 화재로 서별실, 적묵당 소실

1804년(순조 4) : 서별실 적묵당 중건

1835년(헌종 1) : 2월 백련당 화재로 대웅전, 금당, 관음전까지 전소.

1835년(헌종 1) : 12월 운수암 화재로 소실 후 중건

1838년(헌종 4) : 정당, 중별실, 만성재 건립

1839년(헌종 5) : 연지당 중건, 법당, 누각 번와 보수

1840년(헌종 6) : 노전, 조실 건립

---

16) 新羅文武王十六年卽有唐儀鳳元年義湘國師奉敎…(중략)…以神文王元年辛巳刱高雲寺

1842년(헌종 8) : 후사 건립
1868년(고종 5) : 후사 증축, 우의당 건립
1884년(고종 21) : 금당 중수, 산령각 건립
1885년(고종 22) : 금당, 승당 중수
1899년(고종 36) : 연지암, 적묵당, 천왕전 중수
1901년(고종 19) : 해운루 건립
1902년(고종 20) : 기로소 원당인 연수전 중건
1924년 : 약사전 중수, 대정암 창건

이처럼 조선 중기 이후의 기록에는 수차례에 걸친 화재로 인해 건물들이 불타고 다시 중건되는 등의 활발했던 건축내용을 찾아볼 수 있고 수많은 전각이 등장하는데 이를 통해 한때 고운사는 대가람의 면모를 갖추었던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가장 번성기에는 사역 내 건물이 300여 간을 넘어설 정도였다고도 한다. 현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16교구 본사로 의성과 안동, 봉화, 영주, 영양 등 5개 시군의 말사를 관장하고 있다.

- 연수전 연혁 및 유래 : 고운사의 창건 과정과 시기를 자세하게 알 수 없는데 비해 연수전 건물은 비교적 건립 시기와 동기를 명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연수전은 최초 영조의 기로소 입소를 기념하여 건립한 것으로 전한다. 고운사사적비(1918년)와 등운산고운사사적(1918년)에는 각각 “갑자년에 어첩봉안각을 세워 판사를 두고 보기(寶器)를 내려 불전에 갖추었다” [17]는 내용과 “기사년에 기로소봉안각을 세우고 명첩을 만들어 존숭하고 호위하는 도리를 본받았다.”[18] 라는 기록이 있어 1744년(영조 20)과 1749년(영조 25) 두 차례에 걸친 건축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기록된 ‘어첩봉안각’과 ‘기로소봉안각’이란 두 전각은 왕이 기로소에 입소하여 어첩을 직접 써서 영수각에 봉안했던 행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건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5년이란 짧은 기간에 한 사찰 내에 그것도 동일한 기능의 두 전각을 따로 건립했으리라고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로소에 입소한 영조가 1744년 관련 원당을 고운사에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기로소 원당에 관한 선례가 없어 어첩을 봉안한 원당으로 최초 건립하였고 이후 1749년에 기로소의 의미를 강조해 ‘기로소봉안각’으로 개칭하였을 것‘이라 해석한 연구[19]가 있다. 이 논문의 내용은 관련 사적비의 전반적인 내용과 빗대어 볼 때 일정 부분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 연수전 건물의 최초 건립을 1744년으로 산

17) ...廟甲子建御帖奉安閣置判事降寶器佛前具也...

18) ...英廟己巳建耆老所奉安閣謹契名帖以効尊衛之道...

19) 이용윤, <조선후기 사찰에 건립된 기로소 원당에 관한 고찰>, 불교미술사학회, 2005, p.195

정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수전에 대한 이후의 건축내용은 약 160여 년이 지난 1902년 기록에서 보인다.
1902년 고운사에서 기로소에 올린 각종 문서가 그것인데 고종의 기로소 입소를 계기로 사찰 내에 원당을 설치하고자 청원한 글이다. 여기에는 “스님들을 소집하여 영수각을 따로 지어 어첩을 우르러 받들고, 또한 앞으로 기로소 봉안각의 초석을 고치고 기둥을 바꾸고자 도모하였다”[20]라는 구절이 있다. 이 내용은 기존의 기로소 봉안각을 보수하는 한편 별도의 영수각을 건립하여 어첩을 봉안하고자 요청한 것인데 결국 사역 내 2개의 원당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로소에서는 “선조의 일을 이어 나감이 마땅하며 새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2개의 원당 운영을 허락하지 않았다 한다. 당시 기존의 봉안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원당을 세우고자 한 의도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영조 연간 건립된 기존의 봉안각이 초석과 기둥을 바꾸어야 할 만큼 퇴락되어 있어 새로운 어첩을 봉안하기에 부적당했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할 따름이다.
새 전각을 세우겠다는 이 요청이 기로소의 반대에 부딪히자 고운사에서는 축리전(祝離殿)을 건영(建營)하겠다는 명목으로 다시 문서[21]를 올려 기로소의 허락을 받게 되고, 2년 후인 1904년 7월에 비로소 축리전이 중영되게 된다. 이어 고운사는 다시 축리전을 영수전(靈壽殿)으로 바꿀 수 있도록 글[22]을 올렸으나 기로소는 무슨 이유에선지 영수전이 아닌 연수전(延壽殿)으로 전각의 이름을 바꾸도록 명하였다 한다. 〈등운산고운사사적〉에도 갑진년 “칙령을 받들어 연수전 건립”이라는 내용[23]이 있어 1904년에 연수전이 완공되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고운사에서 청원하였던 ‘기로소봉안각 중수’와 ‘영수각 창건’의 두 건은 결국 ‘축리전 건영’으로 축소되었는데 이때 세워진 축리전이란 건물 역시 기로소에서 새로운 전각의 건립을 반대하였다는 점과 현재 고운사에 다른 원당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조 연간에 세워진 기로소봉안각을 중건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건물이 후에 연수전으로 이름이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축리전의 중건은 단순한 수리나 보수의 정도를 넘어선 신축에 가까울 정도로 공사의 규모가 컸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기로소에 올린 내용대로 초석을 고치고 기둥을 바꿀 정도이면 건물의 구조는 물론 기초부터 손을 대서 수리해야 하는 매우 심각한 상태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1800년대까지 이루어진 사찰 내 각종 전각의 중수 및 중건

20) ...중략...山門 招集道衆謀 所以別建靈壽閣 崇奉御帖 亦將改礎加楹於耆老案閣...중략 ‘耆老所-當有繼述之事 而刱新非何擬議也’ 이용윤, 前揭書의 인용부를 재인용.

21) ..중략...祝釐殿願堂建營 處分俾爲. ‘耆老所-依施向事’ 이용윤, 前揭書의 인용부를 재인용.

22) ...중략...祝釐殿改以 靈壽殿未知處分何如...중략 ‘耆老所-祝釐殿以 延壽殿依施向事 이용윤, 前揭書의 인용부를 재인용.

23) 甲辰奉勅建延壽殿

기록에 왕실과 관련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기로소봉안각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점도 의아하다. 특히 1887년 기록된 고운사 중수기에는 "……중략……아, 땅의 신령함이 비록 아름답지만 시운(時運)은 똑같기 어려운지라 몇 세대 이래로 승려는 없어지고 절은 폐해져서 쇠락함이 이미 심하다. 약간의 승려가 겨우 동쪽 한 방을 보존하였지만 금당과 승당은 무너진 지 이미 오래라 비바람이 들이쳐서 경관이 근심스럽다.....중략... 을유년(1885) 봄에 마침내 중수하기를 모의하여 금당과 승당을 고쳐 세웠는데, 승당은 옛 제도대로 하였고 금당은 조금 바꾸었다[24] 라 하여 19세기 후반 무렵 사찰의 주불전인 금당과 승당마저도 무너져 없어지고 겨우 방 한칸 정도가 남았다는 정도로 사세가 기울었음을 볼 때 19세기 후반경에 이르러 기로소봉안각은 퇴락이 심해 수리나 중수 정도의 보수로는 손을 댈 수 없었던 상태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현 연수전 구조와 양식을 보면 기단부와 나머지 구조부의 조성 시기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기단부만 영조 년간 초창 당시의 형식인데 비해 그 외 구조는 모두 축리전 건축 당시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최초 건물인 기로소봉안각의 기단 위에 축리전이 새로 중건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이 내용을 종합하여 연수전 내력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744(영조 20) : 어첩봉안각으로 초창
1749(영조 25) : 기로소봉안각으로 개칭
1902(고종 39) : 고종의 기로소 입소를 계기로 영수각 건립 및 기로소 봉안각 중수 요청
1902(고종 39) : 기로소 반대에 부딪히자 다시 축리전 건축 요청
1904(고종 41) : 축리전 건축
1904(고종 41) : 연수전으로 개칭

○ 특징

연수전은 등운산 북쪽 봉우리의 남사면이 평지와 닿는 경사지 끝단에 정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주불전인 대웅보전의 맞은편 북측에 해당하는 위치이며 사역 전체로 보면 거의 중심부에 속한다.
한식 토석담장으로 구획된 방형 별곽 내에 연수전이라 편액된 건물 1동만 단출하게 자리하였으며 정면에 설치된 솟을삼문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다.
연수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5량가 2익공 겹처마 팔작지붕 형식으로 모든 기둥이 원주로 구성되었다. 전·측면의 간살을 보면 전면장이 5640mm로 5340mm의 측면

24) ...중략...嗚呼! 地靈雖美, 時運難齊, 數世以來, 僧殘寺弊, 凋零已甚. 如干緇衲, 僅保東上一室, 而金僧兩堂, 則頹圮已久, 風雨飄飄, 景色愁悶....중략.....乙酉春, 遂謀重葺, 改建金僧兩堂, 而僧仍舊制, 金則小變焉....중략...

장보다 약 300mm정도가 커서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방형 평면을 지향하면서도 정면을 조금 더 강조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3주칸 중 좌우 퇴칸을 모두 1470mm로 하여 어칸의 약 반 정도 크기로 하였는데 이처럼 반퇴 구성의 3칸 건물은 가운데 부분인 어칸이 특히 더 두드러지는 효과가 있다. 중앙부 내진에는 단칸으로 된 실을 독립되게 구획하고 주위 퇴칸를 모두 개방함으로써 사방으로 툇마루가 놓이는 중앙재실(中央在室)형 평면이 되게 하였다. 어칸이 두드러지도록 한 주칸 배열, 그리고 가운데 내진에만 독립적으로 구성된 실 등으로 인해 연수전은 다른 건물들에 비해 중심성이 특별히 강조된 건물로 평가할 수 있다.
실 전면에만 굽널이 있는 4분합 들어열개 띠살문이 설치되어 출입할 수 있도록 된 반면 나머지 3면은 모두 판벽으로 폐쇄되었다. 실내 배벽 상부에는 4분합 아자형(亞字形) 살창이 있는 채감이 설치되어 있고 좌우측 상부에는 실내 채광을 위한 붙박이 교자살창이 달려 있다. 툇마루는 물론이고 실의 바닥도 마루를 깔았는데 모두 우물마루 구성이며 외진주 밖으로는 헌함과 함께 전면 출입부 일부를 제외한 모든 면에 계자난간이 설치되었다.
기단은 전면이 낮고 후면은 높은 경사 지형에 걸쳐서 쌓았기 때문에 전면과 배면의 높이가 다르다. 전면은 세벌대 정도 높이의 장대석 기단인 반면 측면과 배면은 외벌대 높이이다. 특이한 점은 좌우측은 전면과 같이 장대석을 사용하여 기단석을 쌓았으나 배면은 기단석 없이 자연 지형을 고르는 정도에서 기단을 구축하였다는 점이다. 배면 지대가 거의 암반이어서 기단석을 쌓을 만큼 지형을 고르기가 불가능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전면은 지면에 지대석을 깔고 그 위로 잘 다듬어진 장대석을 수평 줄눈에 맞추어 가면서 3단을 겹쳐 쌓았는데 윗면에는 가구식 기단과 같이 갑석을 덮어 격식을 갖추었다. 전면 기단의 중앙부와 좌·우측 단에는 역시 화강석으로 잘 다듬어진 장대석 계단이 3곳 설치되어 있다.
기단석 전체에서는 오랫동안 지나온 시간을 한눈에 느낄 수 있는 세월의 흔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면 기단 일부 장대석에서 발견되는 치밀한 그렝이 수법과 공을 들여 쌓은 듯한 지대석과 갑석의 맞춤 수법이 주목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 기단석이 해체된 흔적이 전혀 없고 맞춤 수법이 흐트러짐 없이 견고한 상태임을 볼 때 영조 년간에 쌓은 최초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초석은 모두 거칠게 다듬은 둥그런 두레박 형상의 화강석 주초인데 상단에 부재가 앉을 자리만 평탄하게 고른 형식이다. 이색적인 것은 이렇게 위를 고른 초석이 기둥이 아닌 연수전 마루의 귀틀을 직접 받치고 있다는 점이다. 기둥은 이렇게 짜여진 마루틀 위에 세워진 다음 귀틀 교차부에 쇄기로 고정되는 구조이다. 이 구조는 통상적으로 중층 누각 건물 상층의 고상식 마루를 결구할 때 쓰는 법식인데 연수전에 이 형식을 도

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일반적으로 마루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귀틀과 여모중방 등을 사용하여 짜 맞추어야 하므로 초석 및 기둥 하부에 확보해야 하는 맞춤부의 여유 폭 등으로 인해 지면에서 일정한 높이로 높게 짜이게 마련인데 연수전은 왕실의 어첩이 보관된 특수성으로 인해 마루 하부에 공간이 없도록 저상형식으로 만들기 원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실지로 현 연수전 마루와 지면 사이의 낮은 틈 사이조차 막으려는 것인지 벽돌을 2-3단으로 고막이처럼 쌓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저상형 온통 마루구조 형식의 사례는 안동 소호헌(보물 제475호)에서 일부 찾아볼 수 있을 뿐 사례가 드문 것으로 왕실의 어첩 봉안이란 특수한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되어야 할 건축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기둥은 모두 원주로 치목하여 외진주는 평주로 하고 내진주 4본은 고주로 하여 키를 높였는데 2680mm 정도의 평주에 비해 고주는 3370mm로 약 690mm 정도가 높으며 지름 역시 고주가 평주에 비해 약 20mm 정도 굵다.
포작은 이익공계 절충 형식으로 외진주 위의 주상포와 귀포 그리고 어칸 창방 상부의 주간포까지 총 16구가 짜여 있다. 평주 위 주상포는 기둥 머리를 사분 변작하여 화통가지를 만들고 초익공과 창방을 교차하여 결구한 다음 그 위에 주두를 놓아 이익공과 첨차를 짜 올린 형식으로 이익공 위에는 재주두를 겹쳐 올려 보 머리를 받도록 한 형식이다. 우주의 귀포는 평주의 주상포와 거의 같은 형식이지만 교차하는 창방과 첨차 뺄목의 외단부를 쇠서로 초각해 장식했다는 점과 모서리의 구조적 보강을 위해 45° 방향의 한대를 설치했다는 점만 다르다. 건물 4면 어칸의 창방 위에 설치된 주간포는 주상포와 형식이 같다. 다만 포작이 평방 없이 창방 위에 직접 올라가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보통 주간포는 평방 위에 올라가는 것이 통상적이나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평방을 두지 않고 주간포를 창방에 직접 올리는 건물들이 왕 왕 눈에 띈다. 그러나 이들도 대부분 창방 위에 좌두를 올려 포작을 짜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수전의 주간포는 창방의 중앙부를 첨차 폭 만큼 따낸 다음 익공 부재와 반턱 맞춤으로 맞춰져 있다. 창방의 단면 폭이 줄게 되고 더구나 그 부분에 집중하중이 작용하게 되므로 창방의 내력성능이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익공 외단은 모두 길게 뻗은 쇠서로 초각되었으나 내단은 쇠서를 내지 않고 연화와 연봉 그리고 당초문 등으로만 장식하였다. 초익공 쇠서는 위로 휘어진 앙서이고 이익공은 끝을 뾰족하게 다듬은 수서 형태로 초각하였으며 각각의 상·하단에는 연화와 연봉, 당초문 등의 초틀임으로 장식하였다. 평주 이익공 상부에는 보머리에 덧대어 봉두각한 별도 부재가 장식되어 있고 우주의 귀한대 상단에는 안과 밖에 여의주를 문 용두가 조각되어 화려함과 함께 근엄함을 표출하고 있다. 쇠서가 비교적 길고 끝이 위아래로 크게 휘어진 초각 수법과 활짝 핀 연화와 연봉 등으로 화려하게 결구된 수법 등이 조선

후기의 장식적 경향을 잘 보여준다.
어칸과 좌우 퇴칸 창방에는 상부에 양갈 소로가 설치된 장식 화반이 올라가 주심도리 장혀를 받고 쳐짐을 방지하는데 귀면화반(정면), 꽃화반과 태극화반(측면), 꽃화반(배면) 등 다양한 형태의 화반을 배치하여 사방의 차이를 두었다.
이익공 상부에 놓여진 퇴량은 고주 몸통에 결구되고 고주 상부에 대량을 놓은 다음 판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받게 하였다. 퇴량과 대량은 단면이 방형으로 네 귀를 살짝 깍아 접은 형태이다.
천장은 외진 툇천장과 내진 천장으로 구분되는데 모두 널반자로 구성하였다. 폭이 비교적 넓고 높은 내진 천장은 3등분하여 반자틀을 양쪽 대량에 건너지르고 차례로 반자판을 끼운 반면 툇천장은 퇴량 사이의 폭을 양분하여 반자널을 끼웠다.
실 내부 배벽 상부에는 채감(彩龕)을 설치하여 달고 4분합 창을 달아 전면이 열리도록 하였다. 창호 상부에는 주두와 포작, 도리, 처마 등이 간략하게 장식되었고 각종 단청과 벽화를 그려 화려하게 꾸며 두었다. 아마도 어첩 봉안의 기능적 특별성을 장엄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붕은 겹처마 팔작지붕이다. 서까래는 끝을 살짝 소매걷이하여 올렸고 서까래 사이에는 앙토를 바르지 않고 개판을 덮어 마무리하였는데 상태를 보아 근래 번와 공사를 하면서 바뀐 것이 아닌가 한다. 서까래 끝을 가지런히 하고 그 위에 초맥이 평고대와 부연, 부연개판 등을 차례로 올려 결구한 후 연함을 놓고 기와를 얹었다. 용마루는 착고와 부고 위에 적새를 5단으로 쌓고 숫마루장을 얹었으며 내림마루와 귀마루는 부고와 3단의 적새 그리고 숫마루장으로 구성되었다. 내림마루 끝에는 망와를 세워 마감하였는데 2가지 형태의 명문 기와가 확인된다. 상단이 뾰족한 형태의 망와는 불기 2962년이라 되어 있어 1935년도에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나 좌·우측이 둥글게 처리된 망와는 갑자년 2월이라 되어 있어 정확한 연도를 확인할 수 없다.
정면 어칸 출입문 상부에는 연수전이라 새겨진 편액이 있는데 좌측에 '광무팔년 팔월 일 기당 김성근봉 칙서(光武八年八月日耆堂金聲根奉勅書)'라고 쓰여 있어 1904년에 해사 김성근(1835~1919)이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연수전 출입문인 만세문은 솟을삼문 형식의 3량가 박공지붕이다. 3단의 자연석 계단 위에 외벌대 장대석 기단이 구축되어 있고 이 위에 3×2칸 크기의 삼문이 있다. 문이 달리는 가운데 열의 기둥만 방주로 한 반면 전·후열은 원주를 세웠고 초석 역시 전·후열 원주는 다듬은 화강석 재질의 장초석이나 가운데 방주는 평초석으로 하여 구분하였다. 어칸 좌우 가운데만 고주로 구성하고 좌우는 평주로 하였는데 고주간에는 창방이 설치된 반면 평주와 고주간에는 창방이 생략된 채 주심도리와 장혀가 고주 몸통에 통으로 맞춤되어 있다. 평주 상부에는 보와 도리 그리고 장혀가 직접 얹혀 십자로 결구되어 있고 보 하단부에는 외단은 직절하고 내단은 사절한 보아지가 설치되어 보를 받

치고 있다.
고주 위에는 주두를 얹고 보와 주심도리 장혀가 십자로 결구되어 있고 창방과 장혀 사이에는 소로가 수장되었다. 보는 폭보다 춤이 긴 장방형의 부재를 사용하였으며 네모서리는 귀를 접어 치목하였고 도리 역시 폭과 춤의 길이가 비슷한 정방형의 부재를 사용하였으며 네모서리는 둥글게 궁글려 깍았다.
가운데 주열에 설치된 판장문은 어칸의 것이 양쪽 퇴칸의 것보다 높고 넓다. 문의 빗장과 빗장둔테 등을 볼 때 일부 수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띠쇠, 광두정 등의 철물은 건립 당시의 것으로 추정된다.
문인방 위쪽에는 세로 살대를 박아 홍살처럼 구성해 두었는데 살대 중간에 귀면과 태극문양, 삼지창 등을 장식하였다. 악귀를 물리치고 나쁜 액운을 막고자 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처마의 서까래는 약하게 소매걷이 하였으며 평고대 위에 연함을 올려 기와를 얹었다. 용마루는 착고와 부고 위에 적새 5단을 두고 숫마루장을 덮었고 내림마루는 부고 위에 적새 3단을 올려 마감하였다. 용마루와 내림마루의 양 끝단에 있는 망와는 근래 보수할 때의 것으로 보인다.
연수전의 단청은 내·외부 모두 금단청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내부와 외부 천장과 판벽으로 구성된 삼면의 벽면에 왕실의 번영과 왕의 무병장수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의 벽화를 장식하였다. 또 전체적으로 화려한 구성으로 복잡한 문양과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였는데, 특히 장단의 사용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장단의 사용이 주 문양과 휘도채뿐만 아니라 양록골팽이 이빛에까지 시채하였는데, 이는 연수전을 보다 화려하게 장엄하려는 의도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연수전 단청과 벽화는 정면 현판과 배면 상단에 기록된 글귀로 정확한 연도를 알 수 있다. 연수전 현판은 김성근(金聲根, 1835~1919년)의 글씨로 현판에는 '광무팔년팔월일기당김성근봉칙서(光武八年八月日耆堂金聲根奉勅書)'라고 기록되어져 있으며, 배면 상단 벽화의 화제에 '세갑진춘(歲甲辰春) 지승우(識勝于) 단확지중(丹雘之中)'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현재 연수전 단청과 벽화가 광무팔년 즉, 갑진년인 1904년에 도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벽화가 도채된 주요 구조 부재 역시 1904년 전후의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앞서 연혁에서 살펴보았듯이 1904년 건축된 축리전이 현 연수전임을 시사해 주는 것이며 당시 건축 범위가 기단을 제외한 건물 전체를 포함하는 신축에 가까운 공사임을 알 수 있다.

3. 지정가치 및 종합의견 :

고운사 연수전은 영조와 고종의 기로소 입소를 기념하여 세운 어첩봉안각으로 건립 동

기와 유래 그리고 연대가 비교적 뚜렷하다. 현 건물은 1744년 세워졌던 원래의 건물이 퇴락해 버리고 1904년 고종 연간에 기단부를 제외한 건물 전체를 신축에 가깝게 새로 짓다시피 한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의 세부양식 및 포작의 수법 등에서 조선 후기적 경향이 보이는 한편 벽화와 단청, 편액의 도채 및 작성 연대가 1904년으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건축과정의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744년 초창 당시의 것으로 보이는 기단부에서 격식과 치밀한 그렝이 쌓기 수법을 찾아볼 수 있고 중심성이 강조된 간살 구성과 중앙재실형 평면 형식 그리고 사례가 드문 저상형 온통마루 구조 형식 등 일부 주목되는 건축 수법이 발견되긴 하나 건축 연대가 그리 오래되지 않고 그 외 특별히 주목되는 점이 적어 건축적인 가치는 다소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로소 영수각 건물로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은 문화유산이라는 희소성이 있고 또 문헌에 기록된 형식과 거의 동일한 형태로 보존되어 사료로서 고증이 가능한 점은 역사 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조선 중후기를 거쳐 오면서 왕실과 사찰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풍부하게 남아있는 문헌과 함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학술적 가치를 함께 고려할 때 고은사 연수전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2.29.>

(앞쪽)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9.12.20	대상문화재	의성 고운사 연수전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 속		직위(직책)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의성 고운사 연수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시도유형 문화재구역과 동일		
			<보호물>		
			<보호구역> 시도유형문화재 보호구역과 동일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4월 24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 환경

의상 고운사 연수전은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116번지에 위치한 영조의 기로소 입소를 기념하고 어첩봉안각으로 초창되어 고종이 기로소에 입소하면서 중영하여 연수전이라 명명한 건축이다.
의성군청에서 의상읍사무소 앞 914번 도로를 타고 남대천 가기 전에 912번 도로 타고 700m 정도 이동 후 연평의성로 북의성 IC 안평, 진평방면 연평의성로 14.2km 이동하여 일직점곡로 점곡방면으로 우회전하여 8.1km 이동한 고운사 내에 위치하고 있다.
고운사는 신라 신문왕 원년(681년)에 의상조사가 청건하고 그 후 고운 최치원이 여지, 여사 두 대사와 함께 중건하였다고 전한다. 임진왜란 때는 사명대사가 식량을 비축하고 부상한 승병의 뒷바라지를 한 승군의 전방기지이었고, 석학으로 이름 난 함흥선사가 후학을 지도할 때 500여명의 대중스님이 수행하였다고 한다. 고려시대에는 14개군의 사찰을 관장하며 암사와 전각이 366칸에 달하였다고 한다.
송림이 우거진 등운산에 위치한 고운사는 속세에서 저만치 있는 듯한 청정 수행도량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로서 5개군에 걸쳐 60여 말사를 관장하는 거찰이다.
고운사 연수전은 사찰 내의 건축양식들과는 차이를 보이는 독립적인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사방으로 담장을 두르고 사당이나 정자와 비슷한 형식의 중심건물이 자리하고 있다.
고운사의 만덕당 앞에서 보면 둥근 언덕 모양의 구릉성산지가 솟아 있는 산이 배산인 등운산(624.2m)이다. 동쪽의 등운산은 북서쪽의 갈라산[25]과 능선으로 이어져 있고 그 사이로 안망천이 흐르고 등운산에서 흐르는 하천과 고운마을에서 합수하여 서쪽으로 흐른다. 주변은 해발 200-450m 정도의 구릉성산지로 동서로 길게 둘러싸여 있으며 계곡으로 하천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고 있다. 단촌(丹村)이라 부른 것은 붉은 돌이 많은 곳이라는 것은 지질학적인 특성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구계(龜溪)라는 지명은 시내에 거북모양의 돌이 많아서가 아니라 구릉성산지의 형세가 거북등을 닮아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터인 것을 일컫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운사 북서쪽의 530m 봉우리에서 남쪽으로 굽이치며 흐르다가 다시 1km 정도 서서 남쪽으로 굽이치며 뻗은 능선이 다시 남동쪽으로 뻗은 자락 끝에 남향하여 연수전이 자리하고 있다. 이처럼 연수전은 능선을 따라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고운사 전각들이 각 산자락이나 지형에 따라 각기 다른 좌향을 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남향하여 자리하고 있다. 또한 연수전이 바라보는 맞은편 산자락에는 고운사 삼층석탑이 자리하고 있다.
고운사사적비(1729)에 “등운산은 보현산(普賢山)이 뻗어 나온 것인데, 맑고 웅장하고

25) 산등에 칡이 많다고 하여 갈나(葛羅)산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빼어나며 기암과 아름다운 물을 끼고 있다. 신라시대 의상조사(義相祖師)가 지팡이를 꽂아 이 절을 열었다... 도선(道詵)이 대중의 기원을 공적으로 드러내어 약사석불과 몇 층의 부도를 안치하여 남쪽 기슭에 두었다... 의성현에는 서쪽은 운남사(雲嵐寺), 북쪽은 고운사(孤雲寺), 서북은 주운사(住雲寺), 남쪽은 운곡사(雲谷寺)가 있었는데, 네 개 운(雲) 자가 들어 있는 절의 명성이 영남에서 으뜸이었고, 뛰어난 경치는 고운사였다." 라는 기록을 보면 풍수적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고운사는 기록이나 지명을 통해서 구릉성산지의 특성을 지역적인 성격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며 풍수지리적으로 담고자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성격을 규명하여 고운사에 연수전이 입지한 것을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동서로 길게 뻗은 능선 사이에는 고운사를 비롯하여 초입의 안동 한산이씨 대산종가와 안동 소호헌, 안동 구암정사, 안동 자운정, 안동 의병대장 척암 김도화강학소, 안동 이산정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운사 주변에는 등운산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재가 분포하고 있다. 지질학적으로 구릉성산지의 특성에 따라 수려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사찰, 누정, 주거 등이 산재하고 있어 역사문화적인 환경은 잘 조성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등운산 자락의 현황을 보면 진입부분은 안동의 문화재이고 고운사 주변이 의성의 문화재로 되어 효율적인 관리나 지역적인 특성을 만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의성 고운사의 불전이 지형에 따라 다양한 좌향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해 연수전은 정남향하여 만세문과 담장을 둘러 독립적인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고운사 연수전은 고운사 내의 사찰의 전각의 성격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으며 사찰 내의 왕실과 관련된 건물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고 있으나 이러한 연계가 의미가 없어진 현재에 사찰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연수전은 1887년에 중수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의 건물은 1904년(광무 8) 이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기로소 영수각지의 형식을 띠고 있는 특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왕실건물연구에 귀중한 자료로서 20세기 초 건립 당시의 형식적 특성이 잘 드러나지만 이전의 형식과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지명을 통해서 구릉성산지의 특성을 지역적인 성격에 반영되었고 풍수지리적인 특성을 규명하여 고운사에 연수전이 입지한 것을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이를 배경으로 사찰, 누정, 주거 등 역사문화적인 환경은 잘 조성되었으나 안동시로 진입하게 되어 관리와 지역적인 특성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의성 고운사 연수전과 관련된 기록으로는 〈고운사사적비(孤雲寺寺蹟碑)〉(1729, 1918), 〈고운사중창기(孤雲寺重創記)〉(1842), 〈고운사중수기(孤雲寺重修記)〉(1887), 〈등운산고운사사적(謄雲山孤雲寺史蹟)〉(1918년) 등이 남아있다.

고운사에는 현존하는 유물과 유적으로는 고운사 연수전(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70호)을 비롯하여 도선국사가 조성한 고운사 석조석가여래좌상(보물 제246호)과 고운사 가운루(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51호), 고운사 삼층석탑(문화재자료 제28호) 등이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경내에는 28동의 고건축이 유존하고 있다.
그리고 고운사에는 과거 왕실의 안녕을 위해 제작된 전패가 연수전 내부에 있었다고 전하는데, 현재 '왕비전하수제년'이라 적힌 전패와 의자(조선후기 제작) 1개가 전해지고 있다.[26] 또한 고려시대 불좌상을 비롯하여 편액, 석가모니불좌상, 명문와 등과 근대 기로소 관련 문서 등의 207종 비지정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27]
고운사 연수전은 사찰의 전각의 성격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왕실과 관련된 건물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사찰에서 의미를 두지 않고 있어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연수전은 왕실건물연구에 귀중한 자료로서 20세기 초 건립 당시의 형식적 특성이 잘 드러나지만 이전의 형식과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연혁·유래 및 특징

고운사와 고운사 연수전과 관련된 역사 관련 기록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고운사는 신라시대 의상에 의해 창건[28]되었지만 정확한 연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오시온이 지은 〈고운사사적비〉(1918)에는 681년이라는 창건연대가 기록되어 있다.[29] 또한 고운사 3층석탑과 석가여래석조좌상의 조성 시기가 9세기경 양식으로 창건연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고운사의 창건 시기는 신라시대 의상이 활동하던 6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9세기 후반 최치원이 중창하였다고 추정될 뿐이다.[30] 고려 초 운주화상(雲住和尙) 조통화상이 사찰을 중창하고, 이후 1018년(현종 9)에 천우(天祐)선사[31]

26) 전패는 일반적으로 광배 모양의 나무에 '主上殿下壽萬歲', '王妃殿下壽齊年', '世子低下壽千秋'라고 글씨를 새긴 삼전패이므로 고운사 연수전에도 삼전패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7) 한국의 사찰문화재 2권, 2008

28) 신유한, 〈고운사사적비〉(1729). 고운사는 신라시대 의상(義湘, 625~702)이 창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명확한 창건연대와 창건 당시 가람배치 등은 언급되지 않는다.
김시오, 〈고운사중수기〉(1887). 의성 북쪽 30리쯤에 등운산 고운사가 있으니, 바로 강좌(江左)의 이름난 절로 신라시대에 창건된 것이라는 기록이 있다.

29) 오치승, 〈고운사사적비〉(1918). 676년 신라 문무왕 16년에 당나라 의봉(儀鳳) 원년에 의상국사(義湘國師)가 교지를 받들어 여러 절에 광포하기를, "등운산이 소문(召文)의 북쪽에서 가장 우뚝한데, 봉우리와 골짜기가 그윽하고 아름다워 신문왕 원년 신사년(681)에 고운사(高雲寺)를 창건하였다.

30) 의상대사가 창건 당시 고운사(高雲寺)였지만 헌강왕 때 선각국사 도선(道詵)이 석조약사여래불과 5층 석탑을 조성하고, 880년대에 신라 말 최치원이 여지, 여사라는 스님과 가허루, 우화루를 짓고, 사찰명을 현재와 같은 고운사(孤雲寺)로 개명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조선 후기에 편찬된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어 추정될 뿐이다.

31) '천우(天祐)'는 〈고운사사적비〉(1729년)에 '宋天祐禪師…'라고 하여 '송나라 천우선사'로 추정할뿐 확인하기 어

가 대규모 불사[32]를 일으켜 사격의 갖추었을 것으로 보인다.[33] 1668년(현종 9)에 가운루[34] 중수 및 천왕문(천왕전), 봉황문이 건립되고,[35] 1670년(현종 11)에 시왕전, 아거각, 명부전이 건립되고, 그리고 1683년(숙종 9)에 팔상전이 건립된다. 1695년(숙종 21)에 선당, 승당, 동상실, 서상실, 청풍당, 적묵당 등을 중수하거나 신축하면서 사찰을 전체적으로 중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중수 이후 화재로 인해 선당, 적묵당, 동상실, 서상실, 청풍당, 문수전, 양로전이 전소되고[36] 1696년(숙종 22) 적묵당과 서별실이 중건된다. 1715년(숙종 41)에 다시 화재로 대웅전과 금당, 관음전, 백련당 등이 전소되나 그 해에 대웅전과 금당을 새로 건립된다. 이와 같이 화재 후에 바로 중창되고 있는 것은 억불숭유의 분위기에도 사세를 유지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18세기에는 사적비를 건립하여 통해 역사를 정리하고 있다.

1724년(경종 4) 운수암 건립, 1744년(영조 20)'어첩봉안각'건립, 1749년(영조 25) 기로소봉안각 건립, 1797년(정조 21) 백련암과 운수암을 중건하였다. 1803년(순조 3) 화재로 서별실과 적묵당이 전소되어 현령인 송요보(宋堯輔)가 명을 받들어 1804년(순조 4) 5개월 만에 다시 중건하였다[37]. 1835년(헌종 1) 2월에 백련당 화재로 대웅전, 금당, 관음전까지 전소되었으나 현령 홍종호(洪鍾浩)가 조정의 명령을 받아 바로 대웅전과 금당을 세웠고, 12월에 운수암이 불타 함홍(函洪)이 중건하였다. 또한 고불전에'현령 이용준 불망비'[38]에도 화재로 소실된 전각들을 중창·보수하는데 지방관들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어첩봉안각과 기로소봉안각의 건립과 이후의 변천 과정을 통해 왕실의 관리와 보호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어느 범위에서 연수전과의 연속성을 검토할 수 있는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1838년(헌종 4)에 정당, 중별실, 만성재 건립, 1839년(헌종 5)에 연지당 중건 및 법당, 누각 등 번와 보수, 1840년(헌종 6) 노전과 조실 건립, 1842년(헌종 8)에 후사를 건립하는 등 기존 건물들을 수리하고 새로운 건물들을 신축하고 있다. 1868년(고종 5)에 눌암(訥菴), 선파(仙坡), 무영(無影)이 후사를 고치고, 해송(海松)은 우의당(禹儀堂)을 건립하였다. 1884년에 금당 중수와 산령각 건립, 1885년 금당과 승당을 중수하였다. 1887년에 작성된 고운사 중수기에는 모니전, 극락

려워 추후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32) 대웅전, 양사전, 극락전, 적묵당, 설선당, 동별실, 서별실, 관음전, 금당, 백련당, 회운당, 청풍당, 문수전, 양로당, 백련암 등을 중건하였는데 지금의 형식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33) 고운사 중창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4) 가운루는 880년경 최치원이 여지(如智)·여사(如事)대사와 우화루(羽化樓)와 더불어 건립하고, 1668년에 극성(克成), 승묵(勝默), 덕종(德鍾)스님이 가운루를 중수하였다. 그 변화 과정에 대한 기록은 살펴볼 수 없다.

35) 〈고운사사적비〉(1729), 〈등운산고운사사적〉(1918) 참조.

36) 〈등운산고운사사적〉(1918)

37) <고운사사적비>(1918)

38) 현령 이 후 용준 영세불망비(縣令 李 侯 容準 永世不忘碑) : 택일기산(澤溢暨山), 고적쾌혁(痼積快革), 영세갈훤(永世曷諼), 주동흘립(鑄銅屹立) 咸豊 九年 己未 四月 日(1859년 음력 4월)에 만든 것이다.

전, 승당, 동실, 객사, 팔상전, 명주번, 노전(요사), 우화루, 수광루, 천왕각, 일주문, 백련암, 운수암 등이 확인된다. 1899년에는 포운(抱雲), 혜은(慧隱), 만우(晩愚)를 중심으로 연지암, 전묵당, 천왕전을 중수하였다. 이와 같이 많은 분들에 의해 366칸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 사찰로 거듭나고 있다.
1901년(고종 19)에 만선(滿船)과 추산(崷山)이 해운루(海雲樓)를 건립하였다고 하나 확인되지 않는다. 1902년(고종 20)에 고종이 기로소에 입소하면서 영조의 기로소 원당인 연수전을 재창하고 영조의 옛 고사를 봉안하였다고 한다. 1906년 종무원으로 승격되어 의성을 포함한 14개 지역[39]의 사찰들을 관할하였다. 1924년 주지 만우의 약사전 중수와 대정암 창건, 1930년대 조선사찰 31본산[40] 중 하나가 되는 것은 후학 양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1934년에 불교전문강원을 개설하고 안동포교당, 와룡포교당, 의흥포교당 등을 건립하고 있다. 고운사는 사세가 가장 번창했을 당시 366간의 건물에 200여 대중이 상주하였던 대도량에 속하였으나 해방 이후 쇠퇴하였다. 1969년 대한불교 조계종 제16교구 본사로 의성, 안동, 봉화, 영주, 영양 등 5개 시·군을 관장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면모를 다시 갖추게 되었다. 현재는 경내에 총 29동의 건물만이 남아있다. 20세기에도 영조의 기로소 원당인 연수전을 고종의 기로소 입소로 재창하면서 명성을 유지하였고 일제강점기에도 교구본사로서의 사세를 지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의성 고운사 연수전은 1744년(영조 20) 영조의 기로소 입소(耆老所 入所)를 기념하여 건립한 것으로 다른 사찰 원당들이 왕실의 추복(追福)과 무병장수를 위해 건립된 것과 달리 특수한 국가적인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건립된 원당이라는 것이다. 연수전은 1744년(영조 20)에 어첩봉안각을 세워 불전[41]을 갖추었고, 1749년 기로소봉안각을 건립하였다[42]고 한다. '어첩봉안각'과 '기로소봉안각'은 왕이 기로소에 입소하여 어첩을 직접 써서 영수각에 봉안했던 것을 의미한다면 같은 건물로 추정할 수 있다.[43]
그 이후 1902년 고종의 기로소 입소까지의 변천과정은 알기 어려우며 고종의 기로소 입소 후 영조의 선례를 들어 원당을 설치하고자 기로소에 여러 차례 문서에 나타난 과정을 통해 이전과 이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영수각을 별도로 짓고, 어첩을 우

39) 여기서 14개 지역은 안동, 예안, 지례, 선산, 금산, 용궁, 비안, 군위, 의흥, 청송, 진보, 순흥, 봉화, 영천을 말한다.

40) 한국 근현대 불교자료전집 65-근대불교 기타자료 3

41) 〈고운사사적비〉(1918년). 연수전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廟甲子建御帖奉安閣置判事降寶器佛前具也."라고 기록되어 있다.

42) 〈등운산고운사사적〉(1918년). 現存英廟己巳建耆老所奉安閣.

43) 이용윤, <조선후기에 사찰에 건립된 기로소원당에 관현 고찰>, 불교미술사학회, 2005, p.195. 1744년 영조는 기로소에 입소하여 관련 원당을 고운사에 건립하였으나 기로소 원당의 선례가 없어 다른 원당과 마찬가지로 어첩을 봉안한 원당으로 건립했을 것으로 추정하며, 숙종보다 기로소에 관심이 많았던 영조가 1749년에 기로소의 의미를 강조해 고운사 원당을 '기로소봉안각'으로 개칭하였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등운사고운사사적〉에도 '기로소봉안각 건립'이라고 한 것은 중창이나 개칭으로 추정하고 있다.

르러 받들고 또한 앞으로 기로소봉안각의 초석을 고치고 기둥을 바꾸고자 도모하였다”라는 것은 고운사는 영수각을 별도로 건립해 어첩을 봉안하고, 기존의 기로소봉안각은 부재만 교체하여 2개의 원당을 운영하고자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선조의 일을 이어나감이 마땅하나 창신(刱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기로소에서 불허하고 있다. 이에 고운사는 축리전(祝離殿) 건영(建營)을 명목삼아 다시 문서를 올려 기로소의 허락을 받고, 1904년 7월에 축리전 중영이 완료된다. 다시 축리전을 영수전(靈壽殿)으로 이름을 바꾸기 위하여 글을 올렸으나 기로소는 영수전이 아닌 연수전(延壽殿)으로 명하고 있다. 〈등운산고운사사적〉에 갑진년 칙령을 받들어 연수전 건립[44]한 것은 연수전이라는 전각명을 사용하였을 때이므로 1904년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고운사에서‘기로소봉안각 중수’와 ‘영수각 별건’을 의도하였으나 (창건인지 중건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축리전 중영’으로 축소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로소에서 새로이 전각을 건립하는 것을 반대하여 고운사 사내에 다른 원당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로소봉안각을 중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1744년 어첩봉안각 건립과 1749년 기로소 봉안각 건립에 대한 기록만 있고 변천과정을 알기 어려우나 다른 기록이나 유물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영조연간에 건립된 원당은 기로소 원당인 연수전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45] 연수전은 왕실과 관련된 건물로 왕실의 지원이 컸던 것으로 확인[46]되어 연수전은 숭유억불시대에도 지방 사림들과 관리들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고 고운사의 모습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원당은 삼국시대부터 건립되어 고려시대에는 왕실만이 아니라 귀족, 승려 등이 개인 원당을 세우면서 성행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원당의 설립주체가 주로 왕실에 한정되어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기도처로서 사찰을 숭유억불정책으로 인한 정치·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침탈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원당 건립에 대한 왕실과 사찰의 입장은 전기에 왕실이 주도적인 입장인 반면 후기에 사찰이 주도적으로 원당 건립을 추진하고 왕실이 후원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137개 사찰에 약 208개의 원당이 건립되었으나 더 많을 것으로 추정[47]하고 있다. 원당은 건립목적에 따

---

44) 〈등운산고운사사적〉, 甲辰奉勅建延壽殿.

45) 〈고운사사적비〉(1918)와 1902년~1904년 사이에 작성된 연수전 건립에 관한 문서 등 참조.

46)“본군 고운사에 축리전(祝釐殿)을 특별히 건조하려 하나 공사 일정이 촉박하므로 본군의 관가 건물 중 낡고 기울어진 무학당(武學堂)과 점곡면(點谷面) 고간(庫間) 4문을 고운사에 부속시켜 철거해 사용하도록 할 일로 기로소의 감결(甘結)을 받아 훈령하니, 해당 관가 건물을 고운사로 이속하여 철거해 사용하도록 하고, 동(同) 관가 건물의 간수(間數)와 재와(材瓦), 석초(石礎) 등 재료를 일일이 수성책(修成冊)한 후 보고하여 이후의 증빙으로 삼도록 하며, 동(同) 기지(基地)를 척량집결(尺量執結)해서 보고하라”고 하여 훈령은 공사 일정이 촉박하여 낡은 관가 건물을 고운사로 이속하여 축리전 즉 연수전 건조에 사용하라는 것이다.

47) 이용윤, 〈조선후기 사찰에 건립된 기로소 원당에 관한 고찰>, 학술논문, 불교미술사학회, 2005, p.187

라 다양한 형태가 있으나 왕실의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해 주는 위축원당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기로소 원당은 재위 중인 왕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므로 위축원당 형식을 취하지만 왕의 기로소 입소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기로소는 고려 희종 때 기영회(耆英會)로부터 출발하여 조선시대에는 1404년(태조 4)에 이거이(李居易, 1348~1412)의 건의로 기영회도(耆英會圖)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개인들의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국가 행사로서 기로모임이 행해졌으며 왕의 기로소 입소가 중요한 행사였다.[48] 영조는 영은군(礪恩君) 이매(李梅)가 51세는 60세를 바라보는 망육(望六)임으로 기로소에 입소해야 한다는 상고를 계기로 시작되어 반대하는 의견에도 영조의 강한 의지 표명으로 숙종의 입기로소의 예에 따라 9월에 거행되었다. 다른 왕과 달리 영조는 12차례에 걸쳐 기로소를 방문하여 영수각을 전배(展拜)할 정도로 관심을 기울였다.[49] 고종은 영조의 선례를 따라 51세가 되던 1902년에 기로소에 입소[50]하는데, 국가적인 혼란 시기에 기로소에 입소하는 배경은 조종(祖宗)의 선례를 따르면서 대한제국 위상을 대외적으로 높이려는 의도도 내포하고 있다.[51] 임금의 기로소 입소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로소 원당 건립에 전국의 사찰들은 큰 관심을 표명하였다.[52]

조선시대 공식적인 왕의 기로소 입소와 마찬가지로 사찰에 기로소 원당이 건립되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숙종·영조·고종 등이 기로소 입소한 해를 전후로 사찰에 건립된 원당은 1744년의 의성 고운사 연수전과 1903년의 순천 송광사 성수전[53]이 남아있으나[54] 성수전은 1957년 관음전의 붕괴 위험으로불상을 옮기고 관음전으로 고쳐 부르고 있다. 이와 같이 의성 고운사 연수전은 왕실의 추복(追福)과 무병장수를 위해 건립된 기존 원당과는 달리 왕의 기로소입소(耆老所入所)라는 국가적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건립되어 기로소원당의 기능을 유지, 보존되고 있는 원당이라고 할 수 있다.

기로소는 언제 건립되었는지는 알기 어렵지만 임란으로 일부 건물이 없어졌고 인조 때

---

48) 기로소에 들어간 조선 역대 왕은 태조, 숙종, 영조, 고종으로 기로소 입소는 중대한 국가행사로 거행되었다. 왕의 기로소 입소는 태조는 60세에 그리고 숙종·영조·고종 등은 태조보다 적은 나이로 기로소에 입소하고 있다.

49) 영조는 1744년 기로소 입소 이후 숙종이 기로소에 든 59세에 해당되는 1752년, 태조가 기로소에 입소한지 세 번째 회년인 1754년, 칠순을 맞이하던 1763년, 태조 탄신 70주년과 같은 기사년인 1773년에 기로소를 방문한 것 외에도 여러 차례 더 기로소를 찾았다.

50) 1902년은 고종이 망육이 되는 해이면서 즉위 4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51) 이윤상, 「고종 즉위 40년 및 망육순 기념행사와 기념물 - 대한제국기 국왕 위상제고사업의 한 사례」, 『한국학보』 29권 2호, 2003. 06, pp. 96~139 참조.

52)“고종이 선왕의 예를 따라 기로소에 들고 예연을 베푼 후 원당을 세우려 하자 전국의 비구와 비구니들이 서로 원당 설치를 원했다.”

53) 순천 송광사 성수전(順天 松廣寺 聖壽殿)은 1903년(광무 7) 고종이 망육(望六) 51세에 기로소(耆老所)에 입소한 것을 기념하여 건립된 원당(願堂)으로 현재 관음전으로 사용되고 있다.

54)“영조가 기로소에 입소하기 한 해 전 1743년에 영조 비인 정성왕후가 경기도 안성에 성수각을 창건하고 영조의 원당으로 삼았다고 한다.”는 내용(권상로의 『한국사찰전서』 하권, p.1024)이 확인되나 기로소 원당이아니라 왕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위축원당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시 세워 운영되다가 숙종이 기로소에 입소하던 1719년에 비로서 규모를 갖추어 1911년(순조 4)까지 유지되었다. 그 자리는 한성 중부 징청방(澄淸坊), 즉 현재 행정구역상 종로 1가, 수송동, 청진동, 세종로 각 일부로 추정된다. 기로소의 배치는 어첩을 봉안한 영수각(靈壽閣)을 중심[55]으로 기영관(耆英館)·기사도상첩봉안각(耆社圖上帖奉安閣)·수직관직소(守直官直所)·부군당(府君堂) 등의 건물들로 이루어지고, 높은 담장을 두르고 출입이 금지되었다.[56] 영수각은 남향한 1칸 건물로 가운데 벽에 어첩을 봉안하는 채감을 설치하고 사면에 전퇴가 있고 계자난간이 둘려져 있다.[57] 《기사경회첩》의 〈영수각친임도〉에는 화면을 양분하는 담장을 경계로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영수각이고, 왼쪽 건물이 기영관이다. 두 건물 사이에는 남문이 삼문이 자리하고 있다. 영수각은 가운데 한 칸의 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면은 개방되어 있고 나머지 삼면은 벽으로 막혀 있는 형태이다. 구조물 중앙에는 용상(龍床)처럼 생긴 채감이 설치되어 있다. 사방은 정자와 같이 벽이 없고 계자난간이 둘러져 있다.[58]

고운사 연수전은 연수전을 중심에 두고, 정면에 만세문인 솟을삼문이 있으며 사방에 담장이 둘러져 있다.[59] 다른 원당의 본 건물은 외형이 일반 불전과 유사한 데 반해 연수전은 가운데 1칸이 방처럼 되어 있고 나머지 사방은 툇마루로 되어 있으며 툇간보다 어칸이 넓다. 이와 같은 형태는 서울에 건립된 기로소 건물인 영수각과 동일한 구조이고, 연수전 내부에 채감이 벽에 부착되어 있으며 어첩이나 전패(殿牌), 궤안(匱案) 등이 놓여 있었다고 전한다.[60] 이는 연수전은 영수각을 원형으로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

55) 기로소에 어첩 봉안하는 일은 왕이 효교(孝敎), 경교(敬敎), 인교(仁敎)의 삼선(三善)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중시되었다.

56) 조선시대에 기로소 체제와 왕의 입소를 정리한 문집은 영조 연간에 『기사제명록(耆社題名錄)』, 헌종 대의 『기사지(耆社志)』 등이 전하는데 홍경모의 『기사지』는 모든 기로소 관련 문헌을 집대성하였다. 『기사지(耆社志)』는 권1 갑편(甲編) 관우(館宇)의 영수각의 구조는“영수각은 기영관 동쪽에 있으며, 숙종 기해년(1719)에 새로 건립되었다. 각은 1칸으로 남향하고 있으며, 가운데 벽에 채감(彩龕)을 설치하여 봉안하였다. 앞에는 분합(分閤)이 있으며, 사면은 각각 전퇴(前退)가 있고 계자난간이 둘러져 있다. 계단 아래에는 소금물항아리 4통을 두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져 있으며 남쪽에 삼문삼문(三門三問)이 있다.”

57) 『기사지』에 묘사된 영수각은 영조의 기로소 입소를 위해 그림 《기사경회첩(耆社慶會帖)》(1744~1745)의 〈영수각친임도〉를 비롯하여 《기영각시첩(耆英閣詩帖)》(1763), 〈영수각송(靈壽閣頌)〉(1765), 〈친임선온도(親臨宣醞圖)〉(1765) 등과 고종의 기로소 입소행사를 그린 《임인진연도병(壬寅進宴圖屛)》(1902), 〈어첩봉안도(御帖奉安圖)〉(1902) 등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58) 영수각의 구조는 이후 제작된 《기영각시첩》, 〈영수각송〉, 〈친임선온도〉 등의 궁중기록화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고종의 기로소 입소를 그린 〈임인진연도병〉은 황제의 예우에 맞게 채감의 장막과 궤안, 담장의 휘장 등 여러 소품들이 황색으로 바뀐 점을 제외하고 영수각은 여전히 중심 한 칸짜리 구조 안에 채감이 설치되어 있고, 바깥 기둥에 난간이 둘러진 건물이었다.

59) 연수전과 비슷한 성격의 원당 건물로는 법주사 선희궁 원당(1765), 해인사 경홍전(1892, 현 경학원), 송광사 성수전(1903, 현 관음전) 등이 있으며 선희궁 원당은 연수전과 동일하게 삼문과 담장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해인사 경홍전과 송광사 성수전은 현재 본 건물만 확인된다.

60) 전패는 왕실의 안녕을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보통 사찰의 주불전 삼존불 앞에 설치된 수미단 위에 위치한다. 대개 삼전패로 광배 모양의 나무에 ‘주상전하수만세(主上殿下壽萬歲)’, ‘왕비전하수제년(王妃殿下壽齊年)’, ‘세자저하수천추(世子低下壽千秋)’라고 글씨를 새긴 형태이다. 고운사의 전패의 경우 ‘왕비전하수제년’이라 적힌 전패(조선

다.
의성 고운사 연수전은 1744년(영조 20) 영조의 기로소 입소를 기념하고, 왕실의 계첩을 적은 어첩을 봉안하기 위한 '어첩봉안각(御帖奉安閣)'으로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1749년(영조 25)에 '기로소봉안각(耆老所奉安閣)'으로 개칭[61]되고, 1904년(고종 39) 고종의 기로소입소로 재창되면서부터 연수전(延壽殿)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
연수전은 왕실관련 전각과 같이 나무의 마감 단정하고 건물의 짜임새가 좋아 조선 후기를 형식을 보이고 있어 영조연간에 세워진 건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세부형식에서 용머리·봉황머리·연꽃 등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으나 채감 앞면의 짜임새와 계자난간의 재질 등의 이질적인 짜임새는 고종 때 중수하면서 이전의 형식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보다 정확한 사실은 건물 상량문 등 사료 발굴과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운사 연수전은 기로소 건물인 영수각을 원형으로 건립한 전각으로 그 기본구조는 영조연간의 것이지만 이후 고종의 기로소 원당으로 다시 사용되면서 후대의 건축적 요소가 첨부된 것으로 추정된다.

수리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성 고운사 연수전은 1744년(영조 20) 영조가 기로소에 입소하여 어첩을 직접 써서 봉안하기 위한 어첩봉안각을 건립[62]하여 불전을 갖추고 1749년 "기로소봉안각을 건립[63]하였다. 이는 왕이 기로소에 입소하여 어첩을 직접 써서 영수각에 봉안한 것을 의미하는 개칭한 것으로 추정[64]된다. 어떤 과정을 거쳤고 1902년 고종의 기로소 입소 이전의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이후 고종이 기로소에 입소하면서 영조의 선례를 들며 사찰 내에 원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기로소에 여러 차례 올린 문서[65]를 살펴보면, 영수각을 별도로 건립해 어첩을 봉안하고 기존의

후기 제작) 1개만이 전해지고 있으나 과거 다른 전패와 마찬가지로 삼전패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재청·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한국의 사찰문화재 경상북도 Ⅱ』, 2008, p.323 에는 소장처가 연지암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별도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61) 이용윤(2005)〈조선후기 사찰에 건립된 기로소 원당에 관한 고찰〉에 따르면 1744년 영조는 기로소에 입소하고 관련 원당을 고운사에 건립하였으나 기로소 원당의 선례가 없어 다른 원당과 마찬가지로 어첩을 봉안한 원당으로 건립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이후 기로소의 의미를 강조해 연수전을 '기로소 봉안각'이라 개칭하였을 것이라 보고 있다. 관련 기록의 원문인〈등운산고운사사적(騰雲山孤雲寺事蹟)〉에서는 '기로소봉안각 건립'으로 되어 있다.

62) 〈고운사사적비〉(1918년). 廟甲子建御帖奉安閣置判事降寶器佛前具也.

63) 〈등운산고운사사적〉(1918년). 現存英廟己巳建耆老所奉安閣.

64) 이용윤, <조선후기 사찰에 건립된 기로소원당에 관한 고찰>, 불교미술사학회, 2005, p.195.
1744년 영조는 기로소에 입소하여 관련 원당을 고운사에 건립하였으나 기로소 원당의 선례가 없어 다른 원당과 마찬가지로 어첩을 봉안한 원당으로 건립했을 것이고, 숙종보다 기로소에 관심이 많았던 영조가 1749년에 기로소의 의미를 강조해 고운사 원당을 '기로소봉안각'으로 개칭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불어〈등운사고운사사적〉에서 '기로소봉안각 건립'으로 되어 있는 것은 중창이나 개칭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등운산고운사사적〉에 갑진년 "칙령을 받들어 연수전 건립(甲辰奉勅建延壽殿)"한 것은 《의성군지》의 〈등운산고운사사적〉국역에 갑진년을 1785년(정조 9)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갑진년은 1784년이고, 연수전이라는 전각명을 사용한 것으로 고종 때이므로 〈등운산고운사사적〉의 갑진년은 1904년인 것으로 추정된다.

65) 스님들을 소집하여 영수각을 별도로 짓고, 어첩을 우르러 받들고 또한 앞으로 기로소봉안각의 초석을 고치고

기로소봉안각은 부재만 교체하여 2개의 원당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기로소에서 불허[66]하자 축리전(祝離殿) 건영(建營)을 명목삼아 기로소의 허락을 받아 1904년(고종 39) 7월에 축리전 중영이 완료된다. 고운사는 축리전을 영수전(靈壽殿)으로 바꿀 수 있도록 글을 올렸고 기로소는 영수전이 아닌 연수전(延壽殿)으로 바꾸도록 명한다. 이 과정에서 '기로소봉안각 중수'와 '영수각 별건'은 규모를 알기 어려운 '축리전 중영'으로 축소된다.[67] 기로소 반대로 중영된 다른 원당이 없으므로 영조 연간에 세워진 기로소 봉안각을 중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지만 그 과정에 대한 기록이 없어 앞으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의 변천과정은 항공사진을 통해 고운사는 창건으로부터 17세기 이후 300여 년간 많은 건축적 변화가 있었으며 주변 지형환경에 대한 많은 변화라고 판단된다. 북쪽의 극락전 일대와 남쪽의 대웅전 일대 영역의 확장과 축소가 되었고, 명부전 일대 계곡 상류 쪽과 현재의 고금당선원 일대, 좌측의 화엄문화템플관과 화엄승가대학원 일대가 확장되었다. 그러나 연수전 일대에는 유교 건축형식인 사당형의 구성[68]을 유지하고 있다.

의성 고운사 연수전은 사찰의 주요 불전이 지형에 맞추어 좌향이 각기 다르게 놓여있는 것과 다르게 홀로 정남향하고 있다. 전저후고(前低後高)의 지형에 전면의 기단은 높고, 배면은 낮게 조성되어 있다.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回자형 평면으로 사면에는 각각 전퇴가 있고 헌함을 둘렀으며, 가운데 방에는 채감이 있고, 앞에는 분합문을 설치하고 있다. 정·배면과 좌·우측면 모두 정간이 툇간보다 넓게 조성되어 정면성을 강조하고 있다. 내진주 4본 사이에는 벽체를 설치하여 내부공간을 구성하고 있어 사찰의 다른 전각과는 다른 독특한 평면 형태를 가지고 있다. 연수전 주변에는 담장을 둘렀으며, 전면에는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솟을삼문인 만세문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는 왕의 어첩이 드나들기 위한 문을 별도로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형태는 조선시대 연로한 고위 문신들의 친목 및 예우를 위해 설치된 관서인 기로소(耆老所)의 핵심 건물

기둥을 바꾸고자 도모하였다

66) 선조의 일을 이어나감이 마땅하나 창신(刱新)하는 것은 옳지 않다.

67) 연수전은 왕실 관련 건물로 왕실 지원이 컸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특히 공사 일정이 여유롭지 않아 낡은 관가 건물을 고운사로 이속하여 축리전(祝釐殿), 즉 연수전 건조에 사용하라는 훈령(축리전을 특별히 건조하려 하나 공사 일정이 촉박하므로 본군의 관가 건물 중 낡고 기울어진 무학당(武學堂)과 점곡면(點谷面) 고간(庫間) 4문을 고운사에 부속시켜 철거해 사용하도록 할 일로 기로소의 감결(甘結)을 받아 훈령하니, 해당 관가 건물을 고운사로 이속하여 철거해 사용하도록 하고, 동(同) 관가 건물의 간수(間數)와 재와(材瓦), 석초(石礎) 등 재료를 일일이 수성책(修成冊)한 후 보고하여 이후의 증빙으로 삼도록 하며, 동(同) 기지(基地)를 척량집결(尺量執結)해서 보고하라는 내용) 등이 전해지고 있다.

68) 사당은 인물이나 조상의 위패를 봉안하고 제사하는 곳이며, 조선후기에 조성된 다른 사찰의 원당들도 대부분 유교적 사당형식을 채택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사당형식은 사방에 담장을 두른 독립된 영역 안의 중심에 세워지고 정면에는 삼문을 설치하였으며, 연수전도 이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영수각(靈壽閣)과 규모, 형태, 특징 등이 동일하게 확인된다.[69]

기단은 장대석 기단으로 상·하대 갑석 사이에 3단의 장대석을 쌓아 올린 형태이다. 장대석기단을 사용한 것은 격식이 있는 건물이고, 기단의 높이가 비교적 일정하여 조선시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보인다. 계단은 정면 중앙에 장대석 디딤돌 4단과 좌·우측면에 배수로와 함께 석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원형 초석 위에 귀틀을 짜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있어 안동 소호헌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누각 구조에 가깝고, 계자난간 아래를 전돌을 쌓아 막아두고 있다. 두리기둥은 외진주 12개, 내진주 4개로 구성되고 내진주가 외진주보다 길이도 길고 지름도 큰 것을 사용하고 있다. 기둥 사이의 기둥머리에는 창방으로 결구하고 있다. 외진주에서 내진주를 잇는 짧은 퇴량을 사방에 놓았고, 내부는 천장이 설치되어 있어 대량을 비롯한 상부구조의 확인이 어렵다.[70]

공포는 이익공 계통으로 초익공 위에 주두를 올리고 그 위로 이익공을 올린 뒤 재주두를 올려 보를 받는 일두삼승식(一枓三升式)구조이다. 초익공은 앙서형, 이익공은 쇠서형으로 초익공과 이익공 모두 연화형이다. 이익공 상부는 퇴량의 보뺄목을 봉황두로 조각하고 있다. 정간 상부에 주간포 형식의 이익공을 1개씩 사면에 배치하고 있어 정간의 위계가 높게 나타난다. 기둥 상부의 창방 위쪽으로는 귀면화반, 꽃화반 등을 놓고 상부 뜬창방을 받치고 있다. 익공계 절충식 양식으로 어간에는 주간포와 공포 사이에는 화반이 설치되어 있다. 이는 조선 중기 이후로 나타나고[71] 조선 후기 관영건축에 많이 나타나는 형식으로 주심도리 선상에 화반을 설치하여 도리의 처짐을 방지하고 장식적인 역할을 부가하고 있다.[72]

천장은 외진천장과 내진천장의 우물 판장 크기는 규모가 크며 장목에 반자를 끼워 넣은 형태로 평반자에 가깝다. 내부는 배면 위에 채감을 구성하고 4짝의 문을 설치하고 있다. 채감의 상부는 간략한 지붕의 형태로 내부의 장엄을 표현하고 있다. 채감 내부는 어첩을 봉안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단청과 벽화를 화려하게 구성하고 있다.

---

69) 영수각은 현재 멸실되어 확인할 수 없으나, 『기사지』 권1 갑편 관우에서 영수각의 구조는'…각은 1칸으로 남향하고 있으며, 가운데 벽에 채감을 설치하여 봉안하였다. 앞에는 분합이 있으며, 사면은 각각 전퇴가 있고 계자난간이 둘러져 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져 있으며 남쪽에 삼문삼문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현재의 고운사 연수전 건물의 구성과 구조에서 동일한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영조의 기로소 입소를 위해 그린 그림인 《기사경회첩(耆社慶會帖)》(1744~1745)의 〈영수각친임도〉, 《기영각시첩(耆英閣詩帖)》(1763), 〈영수각송(靈壽閣頌)〉(1765), 〈친임선온도(親臨宣醞圖)〉(1765) 등과 고종의 기로소 입소행사를 그린 《임인진연도병(壬寅進宴圖屛)》 〈어첩봉안도(御帖奉安圖)〉(1902) 등에서 기로소 영수각의 형태를 찾아볼 수 있는데, 현재의 연수전과 형태가 유사하여 기로소 영수각의 형식을 따라 지었음을 알 수 있다.

70) 1998년 해체보수 도면에는 천장 반자 상부에 대량이 있고 그 위에 판대공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71) 익공은 중국과 일본에는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공포 구성 방식으로 절점의 강성을 높이면서도 공포의 구성은 간단해서 주심포에 비해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한다. 또한 익공의 시작은 임진왜란 이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임진왜란 이후 국가시설의 재건에서 간결하며 구조적으로도 성능이 우수한 익공이라는 방식을 활용하여 궁능을 재건하면서 보편화되었다고 한다. 도서출판 선(홍병화 지음), 《전통건축구조, 새로운 이해》, 1995(초판 제1쇄 2013), p.103

72) 이상명(2017)〈조선후기 이익공식 관영건축에서 화반의 의장성 강화, 한국건축역사학회, 26권 2호, p.15

지붕은 겹처마 팔작지붕으로 소매걷이 한 서까래에 평고대 위에 연함을 올려 기와를 올리고 있다. 용마루에는 착고 1단, 부고 1단, 적새 5단, 숫마루장을 얹고 있고, 내림마루에는 부고 1단, 적새 3단, 숫마루장을 얹었으며 끝에는 망와를 올리고 있다. 망와는 불기 2962(1935년 제작)년 명문이 있는 상단이 뾰족한 형태의 망와와 갑자년 2월이라는 명문이 있는 좌·우측면이 둥글게 처리된 망와가 있다. 후자는 정확한 연도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어첩봉안각을 세워 불전을 1744년[73]으로 추정되나 가운루에서도 확인이 되어 연대 고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루는 우물마루이고 정·배면이 측면보다 크게 나타나고 청판은 일정하다. 마루에는 헌함을 두고 계자난간으로 장식하였다. 계자난간의 궁창부에는 풍혈을 설치되나 풍혈 형태로 그림만 그리고 있다. 중앙 상부에는 연수전이라 새겨진 편액과 편액의 좌측에는'光武八年八月日耆堂金聲根奉勅書'라고 쓰여 있어 1904년에 해사 김성근(1835~1919)이 쓴 것이다.

만세문은 솟을삼문 형식으로 연수전에 진입하는 진입공간이다. 유교적 공간의 출입문으로 사용되는 것을 어첩봉안각에 설치한 것으로 높은 담장으로 둘러져 있으며 남쪽에 삼문이 있는 영수각의 형식으로 추정된다.[74] 만세문은 1단의 장대석기단을 설치하고 그 앞에 3단의 계단이 있다. 그 위에 방형초석을 놓았는데 중앙의 초석이 좌·우측면보다 장주초석이다. 초석 위에 정면 4개, 배면 4개의 원기둥과 중앙에 4개의 네모기둥이 있다. 기둥은 중앙에 고주와 좌·우측면에 평주를 사용하고 있다. 가구는 정·배면 기둥 상부에 보를 얹어 주심도리와 장혀가 결구되고 보의 중앙에는 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받고 있는 3량가이다. 고주 위에 창방과 보아지를 결구하고 그 위에 주두를 얹고 보와 주심도리와 장혀를 결구하고, 창방과 장혀 사이에 소로를 수장하고 있다. 장방형 보의 모서리는 사선으로 처리하고, 정방형의 도리는 모서리를 궁글려 처리하고 있다. 솟을삼문은 판문으로 가운데 문이 측면의 문보다 높고 넓게 만들고 있다. 문의 빗장과 빗장둔테 등은 일부 수리가 있었으나 띠쇠, 광두정 등의 철물 등은 건립 당시의 것으로 추정된다. 문 상방 위에는 홍살과 같이 세로살대를 설치하고 중간에는 귀면과 태극문양, 삼지창을 설치하고 있다.[75]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서까래는 약하게 소매걷이하고 평고대 위에 연함을 올려 기와를 얹었다. 용마루에는 착고 1단, 부고 1단, 적새 5단, 숫마루장을 올리고 내림마루는 부고 1단, 적새 3단, 숫마루장을 올리고 있다. 용마루와 내림

73) 고운사사적비 (1918)

74) 연수전의 원형으로 추정되는 기로소의 영수각은 현재 멸실되어 그 형태를 확인할 수 없지만 『기사지』권 1 갑편 관우에서 '높은 담장으로 둘러져 있으며 남쪽에 삼문삼문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만세문과 같이 진입공간에 별도의 문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5) 홍살문은 왕의 능과 묘, 서원이나 향교 등에 주로 설치되며 신성시 되는 장소를 보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만세문에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귀면은 악귀를 물리치고 삼지창은 나쁜 액운을 공격한다는 의미이다.

마루 끝은 망와를 설치하였는데 근래에 보수한 것으로 보인다. 만세문의 정면 중앙에 편액이 걸려 있고 만세문[76]이라고 적혀 있다. 만세문은 왕의 어첩, 즉 왕이 드나들던 문이므로 솟을삼문의 형태를 취하고 작은 규모에도 형태 및 부재가 섬세하고 화려한 단청 등으로 왕실의 공간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수전의 특징적인 것은 단청으로 왕실의 계보를 적은 어첩을 봉안하고, 기로소 입당을 기념하며 연명장수를 축원하기 위한 건물로 사찰의 전각들과 다른 구조와 단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외부의 금단청은 삼면의 판벽과 천장에 왕실의 번영과 왕의 무병장수와 관련된 다양한 벽화를 장식하고 있다. 또 복잡한 문양과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고 장단의 사용[77]으로 화려하게 구성하고 있다. 단청과 벽화는 배면 상단에 벽화의 화제에 '歲甲辰春 識勝于 丹雘之中'이라고 기록되어 광무팔년(갑진년)인 1904년에 도채되고 있다. 내부단청은 양호하지만 외부의 단청은 퇴락되었는데 나무 판벽의 벽화는 퇴락이 심한 편이다.

외부 단청은 금단청으로 장단과 삼청, 양록과 육색 등을 화려하게 도채하고 있다. 주요 머리초의 문양은 연화이고, 외진주 회랑에 평반자를 설치하고 용, 봉황, 학 등을 시문하고 있다. 정면은 금단청으로 화려하게 시문한데 비해 좌·우와 배면은 간소하게 도채하고 있다. 좌·우측면 머리초는 계풍에 얼금무늬로 시문하여 정면에 비해 간소화한 형식이고, 배면 모로단청의 머리초는 겹녹화이고 계풍에 별지화를 시문하고 있다.[78]

정면 어칸의 도리·장혀는 연화병머리초로 시작은 6판 매화점을 찍은 먹직휘와 겹녹화결련금직휘를 도채한 이중직휘로 구성하고 온바탕에는 낙은동으로 받친 측연화와 연화의 상부에는 석류동과 삼색항아리를 올리고 삼청의 둘레주화와 양록골팽이로 둘레를 장식하고 있다. 반바탕에는 입연화를 시문하고 삼청의 둘레주화를 두르고 양록골팽이로 장식하였다. 바자휘는 장단·삼청·황·양록·육색·석간주 순으로 6휘를 구성하고 휘골에는 삼색항아리로 장식하고, 계풍은 차련금문으로 장식하고 있다. 정면 좌·우측칸의 도리·장혀는 연화머리초로 시작은 6판매화점을 찍은 먹직휘 단휘로만 구성하고 장단·

76) 만년, 영원한 삶과 길이 번영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연수전(延壽殿)과 상응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77) 장단의 사용이 주문양과 휘도채뿐만아니라 양록골팽이 이빛에까지 시채하여 화려하게 장엄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78) 부연평고대는 뇌록바탕에 먹·분 장획긋기, 부연은 앞목에 겹녹화머리초, 양옆에 삼청질림을 두고 장단·삼청·황·석간주 4늘휘를 장식하고, 쇠첩을 붙이고 녹·황실, 먹당기로 마감하고 있다. 계풍은 뇌록으로 도채하고 양끝으로 먹·분선과 양록으로 색긋기하였다. 부연배는 부연초와 문양을 연결하여 같이 시문한 후 계풍은 육색3빛으로 색긋기 후 가운데 분째기를 하였으며, 뒷목은 생략하였다. 부연부리는 장단 2빛으로 구획하고 가운데 먹바탕에 6판매화점을 찍어 장식하였다. 부연개판은 뇌록바탕에 원호를 구획하고 범자를 시문한 후, 겹녹화와 석류동으로 장획하고 장단과 삼청 이빛으로 둘레를 둘린 둘레방석초로 장식하였다. 착고는 장단과 삼청으로 채색한 겹녹화결련금으로 장식하였다. 연목평고대는 중앙의 먹·분 장획긋기를 중심으로 위쪽은 양록, 아래쪽에는 장단을 시채하였다. 연목은 속녹화를 가진 반주화머리초를 장식하였는데, 둘레를 삼청의 둘레주화와 삼색항아리로 장식하고 또다시 골팽이를 돌려 장식하고 석간주 2빛항아리를 올렸다. 휘는 장단·삼청·황·석간주 4인휘로 장식하고 휘골에는 녹색항아리를 올린 후 쇠첩을 두고 녹·황실, 먹실로 마감하였으며, 뒷목은 생략하였다. 연목부리는 양록의 배주기를 둔 6엽의 장단연화를 시채하였다. 도리·장여는 정면과 좌·우측면의 도리·장여초에 측연화와 바자휘 등으로 화려하게 구성하였으나 배면의 도리·장여초에 녹화와 늘휘로 간소화게 구성하고 있다.

삼청·석간주 3휘의 바자휘와 오금골팽이로 장식한 휘골 그리고 어칸과 같이 차련금문을 시문한 계풍으로 구성하여 정칸보다 간단하게 구성하고 있다. 좌·우측면의 도리·장혀초는 정면과 구성을 동일하게 하였으나 계풍에 간소화한 얼금문으로 장식하고 있다. 배면의 도리·장여초의 시작은 6화 매화점을 찍은 먹직휘를 시작으로 겹녹화와 장단·삼청·석간주 3 늘휘로 구성하고 계풍에는 소나무와 괴석 등의 별지화로 장식하고 있다. 좌·우측면의 창방은 정면과 달리 머리초의 시작을 6판 매화점을 찍은 먹직휘만으로 구성하고, 장단의 입연화를 중심문양으로 하여 둘레에 걸골팽이를 시문하고 있다. 장단·삼청·석간주 3휘로 구성한 인휘와 삼색항아리를 올린 휘골 그리고 금문 대신 4판의 육색주화와 얼금문 등으로 간략하게 시채한 계풍으로 하고 있다.[79] 배면의 창방은 정면과 좌·우측면에 비해 간략한 문양들로 구성되고, 배면의 창방초는 도리·장여초와 같이 6판 매화점을 찍은 먹직휘를 시작으로 겹녹화머리초로 중심문양을 구성하고 장단·삼청·석간주 3휘로 시채한 늘휘와 간략하게 별지화를 그려넣은 계풍으로 구성하고 있다. 창방내부의 문양은 외부 배면의 창방문양과 동일하게 겹녹화를 주문양으로 하여 간략한 문양으로 구성하고 있다. 공포는 연화를 초각하여 장식한 익공의 옆면은 초틀임으로 장식하고 이익공 위에 봉두를 올려 마감하고 있다. 귀포의 이익공 위에는 여의두를 문 용두로 장식하고 있다. 익공의 단면은 먹과 장단으로 외곽을 구획하고 먹바탕에 매화점을 찍어 장식하였다. 주두는 뇌록바탕에 양옆에 장단 반질림을 둔 겹녹화로 장식하고 둘레에 녹·황실을 두르고 있다. 배면과 외진열 내부 주두에는 뇌록바탕에 아무 문양을 시문하지 않고 둘레에 먹·분선을 두르고 있다. 소로는 뇌록바탕에 양옆에 삼청 반질림을 둔 겹녹화로 장식하고 둘레에 녹·황실을 두르고 있다. 배면과 외진열 내부에는 뇌록바탕에 아무 문양을 시문하지 않고 둘레에 먹·분선을 두르고 있다. 외진열의 화반은 초각은 동일하나 배치되는 위치에 따라 귀면과 태극, 연화 등으로 달리 시채하고 있다. 정면 화반은 모두 귀면문으로 시문하였는데 어칸에는 삼청으로 시문하고, 좌·우측칸에는 장단으로 시문하고 있다. 좌·우측면 화반은 연화와 태극문을 번갈아가며 배치하고 있다. 배면 화반은 모두 연화로 연밥의 표현과 양록의 쇠코와 삼청의 쇠코 받침 있는 측면의 연화화반과는 달리 연밥도 표현하지 않고 양록의 쇠코로만 간략하게 시문하고 있다. 외진열의 화반의 내부는 네면 모두 배면 화반과 동일하게 간략한 연화문으로 시문하고 있다.

외진열의 주의초는 6판 매화점을 찍은 먹직휘를 시작으로 오금받침을 둔 연잎을 나열하였는데 1열에는 장단연잎을 배열하고 2열에는 양록의 배주기를 가진 삼청연잎을 배열하여 드림주의 같이 구성하고 있다. 내진열의 주의초는 6판 매화점을 찍은 먹직휘를 시작으로 연화를 주문양으로 한 머리초주의로 장식하였는데, 양록의 속골팽이와 석류

79) 정면 창방에는 6판 매화점을 찍은 먹직휘와 고리줏대금직휘로 이중직휘를 구성하고 평면연화를 중심문양으로 하여 삼청의 둘레 주화와 겉골팽이를 시문하였다. 휘는 장단인휘만으로 구성하고 계풍에는 연등금문을 시채하였다.

동과 항아리를 올리고 둘레를 양록골팽이로 구성하고 있다. 휘는 인휘로 장단·삼청·석간주 3휘로 구성하고 휘골은 삼색항아리로 장식하고 녹·황·먹실로 마무리하고 있다. 궁창초는 퇴락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가운데 두 칸에는 귀면으로 장식하고, 양옆의 가장자리에는 원으로 구획하고 주위에 골팽이와 연화로 장식하고 있다. 원호의 안에 무늬를 시문한 것으로 보이나 퇴락이 많이 진행되어 확인하기 어렵다. 외진 회랑의 천장에는 왕과 왕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문양을 시문하였는데, 정면에는 두 마리의 운룡을 장식하고, 좌·우측면에는 네 마리의 봉황을 운문과 함께 장식하고 있다. 배면 또한 네 마리의 학을 운문과 함께 장식하고 있다. 내부 단청은 금단청으로 장단과 삼청, 양록을 주로 사용하여 화려하게 구성하고 있다. 주요머리초는 겹녹화를 사용하였으며, 벽면과 천장에 해와 달, 학, 태극, 용 등을 화려하게 도채하고 있다. 창방·상인방은 정면을 제외하고 좌·우측면과 배면의 상인방 이하는 창호지가 발라져 있어 정확한 문양이 확인되지 않으나 창방의 문양과 유사하게 도채된 것으로 추정된다. 창방초는 6판 매화점을 찍은 먹직휘를 시작으로 겹녹화머리초를 시문하였는데, 겹녹화의 양옆에는 장단반질림을 두고 있다. 휘는 늘휘로 장단·삼청·석간주 3휘로 구성하고, 휘골은 삼색항아리로 장식하고 쇠첩과 녹·황·먹실로 마무리하고 있다. 계풍에는 장단과 육색으로 얼금무늬를 시문하였는데, 정면의 창방과 상인방에는 아무런 무늬를 시문하지 않고 계풍을 뇌록가칠만으로 시채하고 있다. 채감 상부의 도리 장여초는 창방의 문양과 같이 시문하였는데, 겹녹화의 이빛을 장단으로 화려하게 도채한 것이 다르다. 채감 상부의 화반은 삼청을 장식한 백자화병으로 장식하였는데, 장단연꽃을 꽂아 장식하고 있다.

상부벽화는 좌·우측벽에 대칭으로 해와 달을 운문과 같이 시문하고, 정면의 벽에는 운문과 함께 학을 시문하고 있다. 반자는 청룡과 황룡 두 마리의 용을 삼청과 양록, 장단의 색운과 함께 생동감있게 시문하고 있다. 채감 내 반자는 가운데 장단과 황으로 원호를 구획하고 먹바탕에 문자를 시문하였는데, 원호의 주위는 삼청배주기를 가진 장단의 오금골펭이를 3빛으로 도채하고 둘레에 겹녹화를 장식하고 있다. 원호 안의 문자는 해(日)와 달(月)을 중심으로 사이에 기린(麟), 거북(龜), 봉황(鳳), 용(龍)을 시문하고 있다. 채감 내 반자 종다라니초는 4판의 육색주화를 중심으로 한 둘레방석초를 시문하였는데, 주화 둘레는 겹녹화와 장단의 배주기로 장식하였으며, 장단과, 삼청, 석간주 3 늘휘로 둘레방석초를 완성하고 있다. 계풍엔 육색과 장단, 석간주로 3빛 긋기한 후 가운데 분째기를 하고 있다.

벽체는 창호로 구성된 정면을 제외한 삼면을 나무판벽으로 구성하고 벽화[80]를 장엄하고 있다. 판벽은 흙벽이나 회벽에 비해 벽화의 수명이 오래가지 않으나, 연수전의 벽화는 원당(願堂)으로 보존·관리되어 현재까지 벽화가 남아 있다. 벽화의 내용은 연수전이

80) 문화재청·사단법인 성보문화재연구원, 「한국의 사찰벽화_사찰건축물 벽화조사보고서(경상북도-2)」, 2011년, pp.590~598 요약

갖는 건물의 성격에 맞게 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상징물과 무병장수와 부귀영화를 기원하는 화제와 장식을 적절히 조화시켜 화면을 구성하고 있다.
우측면과 좌측면은 상인방을 중심으로 위쪽은 창호를 구성하고 창호의 양옆에 삼태극문양을 각각 2개씩 도채하고 아래쪽 판벽에는 연화도와 운룡도를 각각 도채하고 있다. 배면에는 상부에 창호를 구성하지 않고 상인방을 중심으로 위·아래에 장생도를 그렸으며, 화제를 붉은 글씨로 기록하였다.
우측면의 벽화는 상부의 창호 우측으로 '龍樓萬歲'라는 글귀와 상인방 계풍에'富似海百千秋'가 씌어있다.[81] 상인방 하단에는 상단의 글귀와 같은 의미의 벽화를 도채하였는데,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퇴락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다. 벽화의 내용은 군자와 부귀영화를 의미하는 연꽃과 고종황제를 상징하는 붉은 해, 장수를 상징하는 거북으로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는 상단의 글귀와 어우러져 황제의 수명장수와 부귀영화를 강조하고 있다.
좌측면의 벽화는 상부 창호 좌측으로 '鳳閣千秋'라는 글귀와 상인방 계풍에 '壽如山長不老'가 씌어있다.[82] 상인방 하단에는 상단의 글귀와 같은 의미의 벽화를 도채하였는데, 우측면과 마찬가지로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퇴락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다. 벽화의 내용은 달을 중심으로 두 마리의 용이 구름 속에서 비상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원래 달은 왕비를 상징하지만 이 벽화에서는 황태자를 상징하고 있다.
배면의 벽화는 좌·우측면의 판벽과는 달리 창호를 구성하지 않고 상·하부에 모두 장생도가 도채되어 있다. 상부에는 왼쪽으로 굴곡진 매화나무와 두 마리의 학, 영기(靈氣) 사이에 피어오른 영지버섯이 그려져 있고 중앙에 '巡簷三月梅蘁笑 華表千年鶴頂丹 歲甲辰春 識勝于 丹臒之中'이라는 글귀가 씌어있다.[83] 그림과 화제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수백 년을 살아온 매화나무와 천년을 산다는 학, 영지 등은 모두 장수의 상징물로서 구름사이로 드러낸 해와 달의 표현은 왕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부에는 왕을 상징하는 붉은 태양과 일각수[84]와 장수를 의미하는 소나무가 그려져 있고, 중앙에 '松檀忽風一角獸 馬蹄麛身何物似 知有此間復見 乘平日月...'이라는 글귀가 씌어있다.[85] 우측에는 소나무 한그루가 언덕 위에 서 있고 그 아래에 일각수가 먼발치의

---

81) 용루만세는 왕이나 황제의 수명장수를 축원할 때 사용되는 문구로 왕실발원의 축원문에 주로 등장하며, 부사해백천추는 부귀가 바다와 같이 영원하길 바란다는 왕실의 영속성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82) 황태자 순종의 수명장수와 황제국으로 대한제국의 권위가 황제와 황태자로 계승되기를 기원하는 국운의 영속성을 상징하고 있다.

83) '처마 끝에 3월의 매화꽃은 미소 짓고, 학 정수리의 붉음은 천년동안 변함없도다. 갑진년(1904년) 봄에 단청하던 중에 흥이 올라 쓰다'라는 의미로 추복(追福)의 대상과 풍경을 묘사하면서 벽화의 제작시기를 언급하고 있다.

84) 일각수(一角獸)는 사슴 몸에 뿔 하나를 가진 용의 머리에 말 발굽과 쇠꼬리를 한 기린과 비슷한 상상의 동물로 성천자(聖天子)의 치세로 세상이 태평성대를 누릴 때 등장하는 상서로운 동물이다.

85) '홀연히 바람 부는 소나무 둔덕에 일각수, 말굽을 지닌 노루떼는 어떤 짐승을 닮았는가? 이 사이를 다시 보니

구름과 해를 바라보고 있다. 시선이 머무는 곳에는 상서로운 구름과 황제를 상징하는 붉은 해가 묘사되어 있어 화제와 그림의 내용이 일치함을 엿볼 수 있다.
연수전의 벽화는 고종의 기로소(耆老所) 입당을 축원하면서 건물을 중수하고 단청 및 벽화를 새로 장엄한 것으로 특히 왕실의 무병장수와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여러 동물과 식물을 그려 궁궐장식화인 십장생도의 불교적 재현이라는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어 궁중회화나 불교회화, 민화적 측면에서 중요성을 띤 벽화라고 할 수 있다.

3.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고운사 연수전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고운사 연수전은 시대적으로 영조의 어첩봉안각과 기로소 봉안각에서 고종의 연수전에 이르는 변화과정과 기로소 원당으로서의 기념성을 정치,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기로소의 영수각과 규모, 형태, 특징 등이 동일하게 확인되는 유일한 형식으로 전패 등의 유물과 기록을 통하여 확인된다. 중심이 되는 인물인 영조는 기로소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12차례에 방문하여 영수각을 전배(展拜)하고 있고, 고종은 영조의 선례를 따라 51세 기로소에 입소하여 조종(祖宗)의 선례를 따르면서 대한제국 위상을 대외적으로 높이려는 의도도 내포하고 있다.
1744년 어첩봉안각 건립과 1749년 기로소 봉안각 건립에 대한 기록만 있고 변천과정을 알기 어려우나 영조연간에 건립된 원당은 기로소 원당인 연수전으로 추정된다. 연수전은 왕실과 관련된 건물로 왕실의 지원이 컸던 것으로 확인되어 연수전은 숭유억불시대에도 지방 사림들과 관리들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고 고운사의 모습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영조의 기로소 입소를 기념하는 특수한 목적으로 건립되었고 고종의 기로소 입소까지 이어지는 변천과정을 추정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건물이라고 판단된다.
의성 고운사 연수전은 문화사적으로 왕실의 추복(追福)과 무병장수를 위해 건립된 기존 원당과는 달리 왕의 기로소입소(耆老所入所)라는 국가적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건립되어 기로소원당의 기능을 유지, 보존되고 있는 원당이라고 할 수 있다. 왕의 기로소 입소라는 사건과 사찰에 기로소 원당을 건립하는 것은 드문 일이고 원형이 잘 남아 있는 것은 유일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고운사 연수전은 예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태평성월이 있음을 알게 되었네'라고 하여 오랜 치세 속에 태평성대를 꿈꾸는 고종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기로소 원당은 재위 중인 왕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므로 위축원당 형식을 취하면서 왕의 기로소 입소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무병장수에 대한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 고운사 연수전은 기로소 건물인 영수각을 원형으로 건립한 전각으로 그 기본구조는 영조연간의 것이지만 이후 고종의 기로소 원당으로 다시 사용되면서 후대의 건축적 요소가 첨부된 미적 가치를 담고 있다고 추정된다.
연수전 일곽은 유교 건축형식인 사당형의 구성을 유지하고 있다. 유교건축형식인 사당형식의 구성을 보이면서 기로소 입당을 축원하는 단청 및 벽화는 왕실의 무병장수와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동물과 식물을 그려 궁궐장식화인 십장생도의 불교적인 재현을 하고 있어 불교회화, 민화적인 측면에서의 미적 가치도 보여주고 있다.
조형적인 측면에서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回자형 평면으로 사면에는 각각 전퇴가 있고 헌함을 둘렀으며, 가운데 방에는 채감이 있고, 앞에는 분합문을 설치하고 있다. 정·배면과 좌·우측면 모두 정간이 툇간보다 넓게 조성되어 정면성을 강조하고 있다. 내진주 4본 사이에는 벽체를 설치하여 내부공간을 구성하고 있어 사찰의 다른 전각과는 다른 독특한 평면 형태를 가지고 있다. 연수전 주변에는 담장을 둘렀으며, 전면에는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솟을삼문인 만세문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는 왕의 어첩이 드나들기 위한 문을 별도로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형태는 조선시대 연로한 고위 문신들의 친목 및 예우를 위해 설치된 관서인 기로소(耆老所)의 핵심 건물 영수각(靈壽閣)과 규모, 형태, 특징 등이 동일하게 확인된다. 특히 3단의 장대석을 쌓아 올린 형태는 격식이 있고 기단의 높이가 비교적 일정하여 조선시대의 궁궐에 사용되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원형 초석은 영수각을 그린 그림과 같아 건물의 격을 높이고 있고, 익공계 절충식 양식은 조선 중기 이후의 조선 후기 관영건축에 많이 나타나는 형식으로 주심도리 선상에 화반을 설치하여 도리의 처짐을 방지하고 장식적인 역할을 부가하고 있다. 망와는 1935년과 갑자년 2월의 명문이 나타나 후자는 1744년으로 추정되나 고증이 필요할 것이다.
솟을삼문 형식의 만세문은 연수전을 둘러싼 높은 둘러싸져 있으며 작은 규모이지만 영수각의 형식으로 추정되며 형태 및 부재가 섬세하고 화려한 단청 등으로 왕실의 공간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수전의 특징적인 것은 단청으로 왕실의 계보를 적은 어첩을 봉안하고, 기로소 입당을 기념하며 연명장수를 축원하기 위한 건물로 사찰의 전각들과 다른 구조와 단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외부의 금단청은 삼면의 판벽과 천장에 왕실의 번영과 왕의 무병장수와 관련된 다양한 벽화를 장식하고 있다. 또 복잡한 문양과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고 장단의 사용으로 화려하게 구성하고 있다. 연수전의 벽화는 고종의 기로소(耆老所) 입당을 축원하면서 건물을 중수하고 단청 및 벽화를 새로 장엄한 것으로 특히 왕실의 무병장수와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여러 동물과 식물을 그려 궁궐장식화인 십장생도의 불

교적 재현이라는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어 궁중회화나 불교회화, 민화적 측면에서 중요성을 띤 벽화라고 할 수 있다.

고운사 연수전은 학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연수전은 영조와 고종에 이르는 어첩 봉안과 기로소 입당 기념 그리고 무병장수라는 축원이 담긴 건물이다. 또한 영수각을 중심으로 하는 기로소는 숙종 때 규모를 갖추어 순조 때까지 유지되었으나 현재 남아있지 않아 영수각을 원형으로 건립한 연수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문화재라고 판단된다.
고운사 연수전은 사찰 내의 건축양식들과는 차이를 보이는 독립적인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사방으로 담장을 두르고 사당이나 정자와 비슷한 유교건축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운사는 배산인 등운산이 갈라산과 능선으로 이어져 있고 그 사이로 안망천이 흐르고 등운산에서 흐르는 하천과 고운마을에서 합수하여 서쪽으로 흐른다. 단촌은 붉은 돌이 많은 곳이라는 것은 지질학적인 특성과 구계(龜溪)는 구릉성산지의 형세가 거북등을 닮은 풍수지리학적으로 좋은 자리라고 판단된다. 그 맥이 연수전으로 이어지고 고운사 전각들이 각 산자락이나 지형에 따라 각기 다른 좌향을 하고 있는 것과 달리 남향하여 자리하고 있다. 또한 연수전이 바라보는 맞은편 산자락에는 고운사 삼층석탑이 자리하고 있다.
또한 영조연간에 건립된 원당이 연수전에 이르기까지의 변천과정을 알기 어려우나 억불숭유의 시대적 배경에도 왕실의 지원으로 연수전의 모습을 유지하였을 것이며 전국 사찰의 관심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숙종 이래로 사찰에 건립된 원당의 원형이 그대로 남아 있는 유일한 사례로 건립 이후에 그 특성을 잘 구현해 왔을 것으로 판단된다.
의성 고운사의 불전이 지형에 따라 다양한 좌향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해 연수전은 정남향하여 만세문과 담장을 둘러 독립적인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사찰 내의 영수각의 규모, 구조, 형태, 구성 등을 간직하고 있어 영수각의 형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된다. 사찰 내에 배치된 왕실과 관련된 건물 연구를 위한 건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수전의 단청 및 벽화는 왕실의 무병장수와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여러 동물과 식물을 그려 궁궐장식화인 십장생도의 불교적 재현이라는 궁중과 불교의 회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단청과 벽화는 그림이나 자료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왕실의 만수무강을 위한 기복에 대한 의미를 담는 유교와 불교적인 상징성이 잘 드러나고 있으므로 학술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부연 개판의 '옴마니반메움'이라는 범어에 대한 시체 시기 등을 조사하여 불교적 상징과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의성 고운사 연수전과 관련된 기록으로는 〈고운사사적비(孤雲寺寺蹟碑)〉(1729, 1918),

〈고운사중창기(孤雲寺重創記)〉(1842), 〈고운사중수기(孤雲寺重修記)〉(1887), 〈등운산고운사사적(謄雲山孤雲寺史蹟)〉(1918년) 등이 남아있다. 그 외 연수전 관련자료는 기로소선생안(1902), 연구전수호절목추후마록(1903) 등의 전적류와 의성군고운사신건축리전수호장정(1902) 등의 문서류 등이 있다.
연수전의 중수관련기록을 보면 영조의 기로소 입소를 기념하여 초창된 것으로 전하며 고종이 기로소에 입소하면서 영조의 선례를 들어 사찰 내의 원당 설치에 대한 상소를 통해 기로소에서 전각을 새롭게 건립하는 것을 반대한 것과 건립 시 왕실의 지원 등은 중건의 의미가 큰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망와의 제작 연도를 통해 1935년 제작된 망와와 1744년으로 추정되는 갑자년 2월 명문 망와가 남아 있어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연수전 편액에는 1904년 해사 김성근이 쓴 것이 확인되고, 연수전 배면의 벽화 화제에 1904년 도채를 확인할 수 있어 당시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연수전은 영조와 고종의 기로소에 입소에 대한 사찰 내의 원당 설치라는 학술적인 가치를 갖으며 사찰과 기로소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왕실 건축으로서 영수각의 형식을 따라 구조와 형식을 가장 잘 갖추고 있는 유일한 형식으로서 가치가 인정된다. 특히 기로소 영수각을 그린 그림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단청과 벽화 그리고 세부형식은 학술적인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첩이 봉안되어 있지 않고 삼전패가 모두 남아 있지 않아 아쉬움이 크지만 왕비의 전패와 의자가 전해지고 있다.
연수전은 영수각의 형식을 띠고 있는 특성이 잘 드러나고 있으나 왕실건물연구에 귀중한 자료로서 20세기 초 건립 당시의 형식적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어 영조의 기로소와 고종의 기로소의 지속성과 연속성은 앞으로의 연구에 의하여 규명되기를 바란다.

고운사 연수전은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20세기 초 건립 당시의 형식적 특성이 주로 나타나고 있어 영조의 기로소와 고종의 기로소의 지속성과 연속성은 앞으로의 연구에 의하여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안건번호 건축 2020-08-002

2. 영주 가흥동 마애여래삼존상 및 여래좌상 주변 연립주택 신축(재심의)

가. 제안사항

경북 영주시 소재 보물 제221호 「영주 가흥동 마애여래삼존상 및 여래좌상」주변에 연립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연립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2구역 “평지붕 최고높이 8m / 2층이하, 경사지붕 최고높이 12m / 2층 이하”

・제3구역 “평지붕 최고높이 11m / 3층 이하, 경사지붕 최고높이 15m / 3층 이하”

・공통사항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에 해당됨.

※ ‘20년 문화재위원회 제7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0.07.16.)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 : 영주 가흥동 마애여래삼존상 및 여래좌상

○ 소 재 지 : 경북 영주시 가흥1동 264-2번지

○ 지 정 일 : 1963. 01. 21.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영주시 가흥동 264-1번지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50m

○ 사업내용 : 연립주택 신축

구분		'20.07.16. (보류)	조정(안)	비고
대지면적		14,611㎡	좌동	-
건축면적		6,304.981㎡	좌동	-
연면적		10,222.903㎡	좌동	
동수/세대수		12개동 / 80세대	좌동	
층수/ 최고높이(m)		지하 1층, 지상 2~3층 / 11.25m	좌동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좌동	
석축	자연석쌓기	H=0.3~2.5m, L=68.12m	-	
	L형옹벽	H=1.0~5.0m, L=250m	H=1.0~4.5m, L=270.5m	
	역L형옹벽	H=1.0~3.0m, L=146m	H=1.0~3.5m, L=194.6m	
	조경석쌓기	-	H=0.4~1.3m, L=87m	

※ 문화재 배면부 토지에 산책로 조성, 잔디·수목 식재 등 공원화 계획 추가

라. 현지조사의견(2020.07.27.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신청부지는 마애불 보호구역으로부터 약 40~60m 이격된 위치로 마애불의 배면과 측면에 해당되며, 배면부는 산봉우리에 가려 보이지 않고, 측면부는 건물 신축 시 일부 옹벽과 건물이 보이는 상황임.

○ 마애불 배면부는 보이지 않아 경관저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측면부는 옹벽과 건물의 배치를 조정함이 좋겠음.

○ 다만, 건물 신축 시 진동에 대한 조치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사업 시행 전에 부지에 대한 유구 조사를 선행함이 좋겠음.

마. 의결사항

○ 부결

- 건물 밀집도가 높고, 역사문화경관 저해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부결 10명

안건번호 건축 2020-08-003

3.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주변 관광지 조성사업

가. 제안사항

경북 영주시 소재 국보 제18호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주변에 관광지 조성사업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관광지 조성 사업을 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 및 허용기준 제3구역 “평지붕 최고높이 8m이하, 경사지붕 최고높이 12m이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 :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 소 재 지 : 경북 영주시 부석사로 345(부석면)

○ 지 정 일 : 1962. 12. 20.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301-1번지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00m

○ 전체사업 현황

구분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4차 사업(금차)
사업 내용	국유림관리 사무소, 파고라 등	대형버스 주차장 85대, 수목식재 등	소형 주차장 674대, 야생초화원 등	의상마당, 부석사이야기길, 화엄마당, 야외무대, 기존도로 확장 등
사업 기간	2015. 12	2018. 4	2020. 4	2020. 8 ~ 2022. 7
사업 면적	651㎡	8,048㎡	16,791㎡	185,641㎡
사업 비	1.5억	23억	18억	61억
허가 대상	대상아님			대상

○ 심의 사업내용 : 관광지 조성사업(4차)

- 화엄마당(13,329㎡) : 법계도미로공원(57.5m*57.5m), 팔각정자(6.5m*6.5m*5.3m), 앉음벽, 사각의자(2.1m*2.1m*0.45), 피크닉테이블 등
- 화엄림(18,087㎡) : 산책로(흙길/흙콘크리트 포장 : L=420m, B=2m), 플랜터, 휴게광장 등
- 기존도로 확·포장
  - 소1-1 : L=520m, B=10m(도로 및 보도 확장)
  - 중(주)1-1 : L=120m, B=3m(보도확장)

토목공사	조경공사
- 토공 · 절 토 : 1,700.0㎥ · 성 토 : 4,900.0㎥ - 우수공 · 우수관(D250~700) : 105.0m · 우수맨홀 : 10개소 · 우수받이 : 25개소 - 포장공 · 아스팔트 포장 : 1,480.0㎡ · 아스팔트 덧씌우기 : 760.0㎡ · 보도 포장 : 890.0㎡ · 콘크리트 포장 : 150.0㎡	- 시설물공 · 전망데크 1식, 팔각정자 1개소, 사각의자 14개소, 야외테이블 6개소 · 앉음벽 1식, 플랜터 1식, 법계도안내판 1개소, 미로공원 1식 · 수목보호판 11개소 - 포장공 · 인조화강석블록포장 : 6,954.0㎡ · 흙콘크리트포장 : 1,794.0㎡ - 식재공 · 교목 - 왕벚나무, 소나무 외 16수종 1,549주 · 관목 - 개나리 외 6수종 10,440주 · 초화류 - 사사조릿대 4,000본 - 우수공 · 우수관(D150~250) : 249.0m · 집수정 : 33개소 · 우수받이 3개소 · 잔디수로 : 552.0m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부결 10명

안건번호 건축 2020-08-004

4. 천안 봉선홍경사 갈기비 주변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가. 제안사항

충남 천안시 소재 국보 제7호 「천안 봉선홍경사 갈기비」주변에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공사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 및 제2구역 “평지붕 최고높이 8m(2층)이하, 경사지붕 최고높이 12m(2층)이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 : 천안 봉선홍경사 갈기비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대홍리 319-8

○ 지 정 일 : 1962. 12. 20.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복모리 12-2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80m

○ 사업내용 : 도로개설 공사

구분	국토부(안)	천안시 (제시안)
과업연장	L=1.42km	L=1.05km
도로폭원	B=15.0～21.0m	B=15.0～21.0m
구조물 최고높이	H=8.5m(고가교량)	H=8.0m(고가교량)
도로편입면적 (역사문화환경구역 내)	A=80,928㎡ (A=55,813㎡)	A=69,151㎡ (A=38,630㎡)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도로 체계 재검토 필요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부결 10명

안건번호 건축 2020-08-005

5. 서울 흥인지문 주변 전통문화 체험공간 조성

가. 제안사항

서울 종로구 소재 보물 제1호 「서울 흥인지문」주변에 전통문화 체험공간 조성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전통문화 체험공간 조성을 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보호구역 및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 : 서울 흥인지문

○ 소 재 지 : 서울 종로구 종로6가 69

○ 지 정 일 : 1963. 01. 21.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서울 종로구 창신동 463-2번지 외 2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50m

○ 사업내용 : 전통문화 체험공간 조성 1식

- 부지면적 : 919.74㎡
- 건축(연)면적 : 170.4㎡
- 층수/최고높이 : 지상1층/5.5m
- 구조 : 전통목조건축물 중 행랑의 형태(안내소, 화장실 포함)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 문화 환경에 맞지 않음.
- 동 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 대안 마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부결 10명

안건번호 건축 2020-08-006

6. 여수 흥국사 대웅전 주변 템플스테이 체험관 건립(2차)

가. 제안사항

전남 여수시 소재 보물 제396호 「여수 흥국사 대웅전」주변에 템플스테이 체험관 건립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템플스테이 체험관 건립을 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 ‘20년 문화재위원회 제4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0.04.16.) : 보류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후 재심의

※ ‘20년 문화재위원회 제5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0.05.21.) : 부결

- 건물 평면·형태 등 조정 필요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 : 여수 흥국사 대웅전

○ 소 재 지 : 전남 여수시 중흥동 17번지

○ 지 정 일 : 1963. 09. 02.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남 여수시 중흥동 10-1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24m

○ 사업내용 : 템플스테이 체험관 건립 1식

구분	'20.04.16. (보류)	'20.05.21. (부결)	금차
건축면적	168.39㎡	166.32㎡	177.21㎡
구조	"T"자형 한식목구조	"一"자형 한식목구조	"ㄴ"자형 한식목구조
층수/ 최고높이	지상1층/ 7.8m	좌동	좌동
지붕	맞배지붕	좌동	팔작,맞배
기타	· 기존 자연석 석축 해체 후 담장 설치 : H=1.8m, L=40m · 배면부 자연석 석축 및 배수로 설치 : H=1.0m, L=48m(집수정 3개소 설치) · 오수처리시설 3톤 설치	· 기존 자연석석축 해체 후 자연석 석축 재설치 : H=1.0m, L=55m · 자연석 담장 및 배수로 설치 : H=1.2m, L=35m · 오수처리시설 3톤 설치	· 기존 자연석석축 해체 후 자연석 석축 재설치 : H=1.0m, L=40m · 자연석 담장 및 배수로 설치 : H=1.2m, L=35m · 오수처리시설 3톤 설치

라. 참고사항(현지조사 2020.04.27.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신청부지는 흥국사 대웅전의 향 좌측의 위치로 근래에 대웅전 보수를 위한 임시법당을 설치하면서 부지를 1m정도 성토한 상황이고, 일제강점기까지 노스님들이 기거하는 건물(사찰에서는 보광전이라고 하나 확실치 않음)이 있었다고 사찰에 전하고 있음.

○ 사찰의 배치상 신청건물이 들어서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나, 건물의 평면, 형태 등은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건물 신축시에는 매장문화재 조사를 선행하는 것이 좋겠음.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 받아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조건부가결 10명

안건번호 건축 2020-08-007

7. 완주 송광사 대웅전 주변 요사채(향로전) 이전 건립(재심의)

가. 제안사항

전북 완주군 소재 보물 제1243호 「완주 송광사 대웅전」주변 요사채(향로전) 이전 건립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요사채(향로전) 이전 건립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해당됨.

※ ‘20년 문화재위원회 제7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0.07.16.) : 보류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 : 완주 송광사 대웅전

○ 소 재 지 :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569-2번지

○ 지 정 일 : 1996. 05. 29.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북 완주군 소양면 송광수만로 256-16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50m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27,617㎡

- 건축면적 : 196.88㎡(59.55평)

※ 기존 향로전 면적 : 105.3㎡

- 구조 : 한식목구조(정면7칸, 측면4칸)
- 층수/최고높이 : 1층/8.61m
- 지붕형태 : 팔짝지붕
- 기타 : 기존 건물(4동) 철거(향로전 105.3㎡, 해우소 9.6㎡, 창고 63㎡, 체력단련실)

라. 현지조사의견(2020.08.07.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신청부지는 대웅전의 향 우측으로 전면의 수림대에 가려 잘 보이지 않으며, 기존에 첨성각과 약사전(큰스님채)이 주변에 자리잡고 있어 신청건물이 들어서도 사찰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찰 건물의 배치를 고려하여 위치를 조정하고, 담장 등의 배치를 조정함이 좋겠음.

○ 또한, 건물의 규모가 다소 과대하므로 크기(면적)를 축소하고, 높이도 낮추는 것이 좋겠음.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지붕 처마 간섭부, 단연과 장연의 형태, 구조적 문제 등 검토·보완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조건부가결 10명

안건번호 건축 2020-08-008

8. 이천 영월암 마애여래입상 주변 삼성각 보수 및 주변정비

가. 제안사항

경기 이천시 소재 보물 제822호 「이천 영월암 마애여래입상」주변에 삼성각 보수 및 주변정비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삼성각 보수 및 주변정비를 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 : 이천 영월암 마애여래입상

○ 소 재 지 : 경기 이천시 관고동 산64-1

○ 지 정 일 : 1985. 01. 08.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기 이천시 관고동 438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37m

○ 사업내용

<삼성각 지붕보수>

- 삼성각 연목이상 해체·설치, 기와 해체·번와
  (기와 90%교체, 연목, 부연 30% 교체)

<삼성각 주변 석축 및 바닥 정비>

- 삼성각 주변 바닥공사 : 기존 견치석 석축 한단 해체((H:200mm)

- 삼성각 정면 화강석 계단 : 해체 후 설치
- 삼성각 주변 자연석 석축(H:0.5~3.8m) 쌓기 : L=33m
- 삼성각 정면 암반주위 자연석 석축(H:0.5~0.9m) 쌓기 : L=24m
- 삼성각 배면 굴뚝 우측 자연석 석축(H:0.4m) 쌓기 : L=3.2m

<안심당 좌측 석축 정비>

- 신규 자연석 석축(H:1.2m) 쌓기 : L=45.8m
  (기존 석축에 연결하여 석축 설치)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배면 암반으로 인한 건물 영향 없도록 보완, 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조건부가결 10명

【검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20-08-009

9. 평창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 상륜부 해체보수공사 추가 재검토

가. 제안사항

‘19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강원 평창군 소재 국보 제48-1호 「평창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 상륜부 해체보수공사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추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19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강원 평창군 소재 국보 「평창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상륜부 해체보수공사와 관련 추가 검토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19년 문화재위원회 제6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9.06.20.) : 조건부가결

- 해체 후 보존처리 방식 등 보수계획을 구체화하여 재심의토록 함.

※ 문화재청(수리기술과) 조건부 설계승인(2019.07.10.)

- 석탑 노반이상 해체 설치, 수납상자 제작, 부식화합물 제거, 탈염 및 방청처리, 보호코팅, 정밀현황조사 등

※ ‘20년 문화재위원회 제5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0.05.21.) : 보류

- 해체에 따른 조치계획, 찰주와 석재의 분리 방안 등 작업 방법 제시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 평창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

○ 소 재 지 : 강원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

○ 지 정 일 : 1962. 12. 20.

(2) 사업내용

○ 사업지침 :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팔각 구층석탑 상륜부를 원형대로 해체보수한다.

○ 사업예산 : 250,000천원(국비 175,000천원, 지방비 75,000천원)

○ 사업내용 : 석탑 상륜부 해체설치(노반 이상)

- 상륜부 금속 보존처리(부식화합물 제거, 탈염처리, 방청처리, 보호코팅 등)
- 상륜부 석재 보존처리(건식·습식 세척, 수지 처리, 강화 처리)
- 상룬부 조사(문양견본도), 과학적 분석(방사선 투과 촬영, 재질적 특성 분석)

(3) 추가검토 : 기 검토된 노반이상 해체에서 8층 옥개석이상 해체 보수

라. 참고사항

1) 자문의견(2019.04.11./전문위원 ○○○, 관계전문가 ○○○·○○○)

○ 정밀한 현황조사의 필요성

- 상륜부 찰주의 부식이 심해서 팽창하므로 석재 및 찰주 표면 동제관의 파손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 해체하여 훼손상태와 재질, 내구성 등에 관하여 정밀하게 파악하여 과학적으로 수치화된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 해체, 방사선 촬영으로 상륜부 전체의 크랙과 훼손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송림사 오층전탑과 일본 야쿠시지 동탑의 상륜부 보수 및 보존 사례를 참고한다.
- 해체 후 3D스캔을 하여 현황 부재 상세와 결구상세 도면을 작성하고, 보존처리 후 상태도 도면으로 작성하여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한다.

○ 보수설계 범위

- 금회는 현황파악과 보존처리 및 재설치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고, 해체 후 상륜부의 상태에 따라 보존 방안을 논의하도록 한다.
- 보개 화형장식의 볼트식 이음에 대해서는 현재 큰 문제가 없으면 보존처리만 진행하여야 한다. 추가적인 작업들로 인하여 부재가 변형이 되거나 손상

되는 것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 해체한 상륜부는 월정사 경내에 적절한 보존처리실이 없으므로 보존처리가 가능한 공간(가능한 보존처리업체)으로 옮겨서 처리하도록 한다.

○ 복원과 복제

- 현재 원형이 차지한 비율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원형 보존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 상륜부는 구조적 불안정이 심각해 보이므로 해체와 보존처리와 함께 향후 보존 및 공개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2) 자문의견(2020.03.07./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관계전문가 ○○○·○○○)

○ 현장 확인 결과, 상륜부의 금속부분 등 대부분의 부재는 균열, 파손, 부식 등 훼손과 원래의 모습이 많이 변형되고 일부는 근래 재료로 복원된 것으로 훼손이 심각하여 철저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해체한 후에 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과거의 수리기록을 확인하여 상륜부 및 찰주와 탑신의 보수에 대한 상황을 파악해 향후 보수정비 과정에 반영하여야 함.

○ 상륜부의 금속부분은 1970년 수리보고서 참고로 찰주의 고정방법 조사와 현재 금속부분 해체 가능여부와 상륜부 부재상태를 고려하여 우선 해체를 수행하고 해체 후 손상상태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기술지도위원 및 관계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존처리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상륜부 해체는 설계승인서에 노반 이상 해체보수로 되어 있으나, 설계도서 및 도면에는 해체가 어려운 경우 찰주 및 8층 옥개석까지 포함하여 해체가 가능한 것으로 명기되어 있음. 따라서 노반이상 해체를 진행한 후에 찰주와 8층 옥개석의 결합상태를 확인하여 하부까지 해체공사가 필요할 경우 최종 해체범위는 문화재청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해체 전에 보륜, 앙화 등 손상이 심한 부재는 충분한 보강 조치 후 해체를 수행하며, 이미 절단된 부재는 수지 접착만으로는 보수 이후 찰주의 움직임 등을 견디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적절한 구조보강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옥개석 하부의 고임철물로 인한 집중하중 및

녹물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리도 필요함.

○ 상륜부 해체가 완료되면 석탑 전체의 장식물, 고임쇠 등에 조사 후 대책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이동거리 최소화 방안, 눕히지 않는 방안 등 해체보수 방안 재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부결 10명

【보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20-08-010

10.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보물 제115호 「안동 이천동 마애여래입상」 주변 진입로 개설(변경허가) 등 허가신청 28건에 대하여 자체검토회의 등을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소 계		28건	원안가결 16건 조건부가결 6건 부결 6건	
보물 제115호 안동 이천동 마애여래입상	경북 안동 (○○○)	□ 진입로 개설(변경허가) ○ 위치 : 안동시 북후면 오산리 615,616 번지 * 제4구역(보호구역에서 430m 이격) ○ 사업내용 - 콘크리트포장 : A=2,358㎡, B=4m, T=200mm - 보강토옹벽 : H=0.5~4.0m, L=120m - 흙쌓기 : 3,408㎥ - 순성토 : 3,408㎥ * '20년 1월 1차 자체검토회의 : 원안가결 - 콘크리트포장 : A=338㎡, B=4m, T=200mm - 옹벽블록 : H=0.5~2.0m, L=186m - 흙쌓기 : 2,435㎥ - 순성토 : 2,435㎥	원안가결	'20.07.27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제1570호 청송 대전사 보광전	경북 청송 (○ ○ ○)	□ 주변정비사업(석축, 계단 공사) ○ 위치 : 청송군 주왕산면 상의리 442-2번지 외 4필지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30m 이격) ○ 사업내용 - 석축공사 : 260.1m ·(A)1구간 : 1단L=4.25m, H=0.8m 2단L=6.35m, H=0.9m ·(A)2구간 : L=4.1m, H=1.8m ·(B)구간 : 1단L=20.2m, H=0.45m 2단L=20.2m, H=0.5m 3단L=22m, H=0.5m ·(C)구간 : 1단L=47.7m, H=0.45m 2단L=49.2m, H=0.5m 3단L=56.2m, H=0.5m ·(D)구간 : 1단L=17.2m, H=0.8m - 계단공사 : L=26.0m, H=1.65m~1.8m ·(가)자연석계단L=10.0m, H=1.8m ·(나)자연석계단L=10.0m, H=1.65m ·(다)자연석계단L=6.0m, H=1.65m - 철거구간 ·(A)구간 : 보도블록 철거 후 지반고르기 A 258㎡ ·(C)구간 : 자연석담장 철거 L=21.5m, H=1.65m ·(E)구간 : 현황 석축 철거 L=12.0m, H=1.0m	원안가결	'20.07.27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제323호 청도 석빙고	경북 청도 (ㅇㅇㅇ)	□ 도로 신설 ㅇ 위치 : 청도군 화양읍 동천리 681번지 일원 * 제4구역(석빙고에서 480m 이격) ㅇ 사업내용 : 도로신설 - L=100m, B=8m (총 사업범위 L=1km, B=8m) - 토공 : 흙깎기 247㎥, 흙쌓기 176㎥ - 배수공 : 측구 417m, 종배수관 146m - 콘크리트옹벽 : 25.7m - 포장공 : 표층(5cm) 776㎡, 기층 776㎡, 보도포장 82㎡	원안가결	'20.07.27
보물 제510호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경북 칠곡 (ㅇㅇㅇ)	□ 도로 확·포장 공사(양성화) ㅇ 위치 :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1102번지 외 25 * 제1,3,4구역(보호구역에서 110m 이격) ㅇ 사업내용 : 도로 확·포장 공사 - 콘크리트 포장 및 아스콘 덧씌우기 : B=4.0~6.0m, L=327m - L형 옹벽식 측구 : H=0.2~1.5m, L=69.0m * '20년 4월 1차 자체검토회의 : 부결 : 사전조치 불명확 * 2020.7.21.현지조사	원안가결	'20.07.27
보물 제541호 홍천 물걸리 석조여래좌상 외 보물 4건	강원 홍천 (ㅇㅇㅇ)	□ 물걸리 굼벵이 사육장 조성 ㅇ 위치 :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1760번지 * 제2구역(보호구역에서 410m 이격) ㅇ사업내용 - 건축규모 : 사육장 4동 - 대지면적 : 2,333㎡ - 건축면적/연면적 : 859.04㎡(214.76㎡×4동) - 최대높이 : 4.4m(지상 1층)	원안가결	'20.07.27

<table>
<tr><th>문화재명</th><th>소재지
(신청인)</th><th>사업내용</th><th>처리결과</th><th>처리일자</th></tr>
<tr><td>보물
제583호
전주 풍패지관</td><td>전북 전주
(○○○)</td><td>□ 업무·숙박시설 건립(재허가)
○ 위치 :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603-3 일원
* 제7구역(보호구역에서 380m 이격)
※ '17년 제3차 문화재위원회 : 원안가결
(허가기간 : 17.03.20 ~ 19.04.30)
○사업내용 : 업무·숙박시설 건립
<table><tr><th>구분</th><th>당초</th><th>금차</th></tr><tr><td>사업면적</td><td>2,704.0㎡</td><td>2,704.01㎡</td></tr><tr><td>건축면적</td><td>1,410.06㎡</td><td>1,449.38㎡</td></tr><tr><td>건축
연면적</td><td>23,120.71㎡</td><td>20,718.74㎡</td></tr><tr><td>건축구조</td><td>철근
콘크리트
라멘조</td><td>좌동</td></tr><tr><td>층수</td><td>지상 15층,
지하 5층</td><td>지상 14층,
지하 5층</td></tr><tr><td>높이</td><td>58.2m</td><td>53.9m</td></tr></table>
※ 주요변동사항
1. 숙박시설 층수 축소 : 15층 → 14층
(연면적 : 10,074.23㎡ → 9,208.51㎡)
2. 오피스텔 층수 축소 : 11층 → 9층
(연면적 : 4,640.61㎡ → 3,449.6㎡)</td><td>원안가결</td><td>'20.07.27</td></tr>
<tr><td>보물
제1307호
고흥 능가사
대웅전</td><td>전남 고흥
(○○○)</td><td>□ 팔영산 탐방지원센터 개축
○ 위치 : 고흥군 점암면 성기리 381-2 외 9필지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160m 이격)
○ 사업내용 : 탐방로 지원센터 개축 1동
- 부지면적 : 9,892㎡
- 건축면적 : 36㎡
※ 기존 건축물 : 팔영산탐방지원센터(32㎡) 1동
팔영산주차장 매표소(9㎡) 1동
- 층수/최고높이 : 1층/2.78m</td><td>원안가결</td><td>'20.07.27</td></tr>
</table>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제459호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충북 제천 (○○○)	□ 주변 아파트 옆(소로1-48호) 도로 개설 ○ 위치 : 제천시 장락동 658-10번지 일원 * 제5구역(보호구역에서 450m 이격) ○ 사업내용 : 도시계획도로 B=10m, L=177.5m - 토공 : 흙깍기 2,150㎥, 흙쌓기 523㎥, 터파기 788㎥, 되메우기 510㎥, 사토 1,905㎥ - 포장공 : 아스콘포장 1,218.7㎡, 접속부 포장 278㎡, 보도포장 314.7㎡, 접속부 68㎡(아스콘 포장) - 관로공 : 우수관로(D600) L=194.5m, 오수관로(D300) L=196.6m, 상수관로(D200) L=181.3m - 기타 : 보차도경계석 355m 등	원안가결	'20.07.27
보물 제290호 고창 선운사 대웅전 및 보물 제2065호 고창 선운사 만세루	전북 고창 (○○○)	□ 불교용품점 신축 ○ 위치 :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624-3 일원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270m 이격) ○ 사업내용 : 불교용품점 1동 신축 - 건축(연)면적 : 101.7㎡ ※ 기존 건축물 100㎡ 철거 완료 - 층수/최고높이 : 1층/7.52m	원안가결	'20.07.27
보물 제510호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경북 칠곡 (○○○)	□ 임목벌채 ○ 위치 :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1035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112m 이격) ○ 사업내용 : 임목벌채 - 지적면적 : 507㎡ - 벌채면적 : 253㎡(0.0253ha) - 벌채본수(재적) : 13본(13.44㎥) - 임령 : 44년(34년~53년) - 평균수고 : 19m(16~22m) - 수종 : 상수리나무(모두베기)	원안가결	'20.08.10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제1568호 상주 양진당	경북 상주 (ㅇㅇㅇ)	□ 가설건축물(창고) 설치 ㅇ 위치 : 상주시 양진당길 23(낙동면 승곡리 194-2)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70m 이격) ㅇ 사업내용 : 가설건축물(창고) 설치 - 면적 : 30㎡(5m*6m) - 높이 : 2.4m - 구조 : 컨테이너	원안가결	'20.08.10
보물 제374호 산청 율곡사 대웅전	경남 산청 (ㅇㅇㅇ)	□ 율곡사 공양간 보수 ㅇ 위치 : 산청군 신등면 율곡사길 182 * 보호구역 내(문화재에서 20m 이격) ㅇ 사업내용 - 사업규모 : 공양간 1동 보수 - 사업예산 : 250백만원 * 문체부보조 - 공사내용 · 전면 툇마루 철거 후 확장(12.4㎡) · 가설공사 : 강관비계 설치 · 기단공사 : 생석회다침 해체 및 보수 · 목 공 사 : 창호, 인방재 신설 및 교체 · 미장공사 : 벽체 신설 및 재설치 · 창호공사 : 목창호 해체, 시스템창호 설치 · 기타 : 내부바닥 및 수장재 교체 등	원안가결	'20.08.10
국보 제285호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울산 울주 (ㅇㅇㅇ)	□ 문화재 안내소 건물(창고) 증축 ㅇ 위치 :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07-1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100m 이격) ㅇ 사업내용 - 문화재 안내소 창고(4.8㎡) 증축 - 목적 : VR컨텐츠 장비 등 보관 - 높이 : 2.4m, 마감 : 징크판넬(고동색)	원안가결	'20.08.10

<table>
<tr><th>문화재명</th><th>소재지
(신청인)</th><th>사업내용</th><th>처리결과</th><th>처리일자</th></tr>
<tr><td>보물
제154호
구례 연곡사
소요대사탑</td><td>전남 구례
(○○○)</td><td>□ 금선암 요사채 건립(3차 변경허가)
○ 위치 :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1022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355m 이격)
※ ‘19년 4월 2차 자체검토회의 : 원안가결
※ ‘19년 7월 2차 자체검토회의(1차변경) : 원안가결
- 지붕 변경(맞배→팔작), 주 진입로 변경
※ ‘19년 12월 1차 자체검토회의(2차변경) : 원안가결
- 건물 위치 조정(동남쪽 9.1m, 21.63° 남향이동)
○ 사업내용
<table><tr><th>구분</th><th>당초</th><th>금차</th></tr><tr><td>대지면적</td><td>2,037㎡</td><td>2,304㎡</td></tr><tr><td>건축(연)면적</td><td>90㎡</td><td>좌동</td></tr><tr><td>지붕</td><td>팔작지붕</td><td>좌동</td></tr><tr><td>구조</td><td>한식목구조
(5칸*2칸)</td><td>좌동</td></tr><tr><td>층수</td><td>1층</td><td>좌동</td></tr><tr><td>최고높이</td><td>6.62m</td><td>좌동</td></tr></table>※ 주요변경사항
1) 주 진입로 변경(동남쪽 진입로에서 서쪽 진입로로 변경)
2) 주 진입로 변경에 따른 석축 추가
<당초>
- 배면부 H=1.5m, L=47m
<금차>
- 배면부 H=0.5~1.5m, L=96m
- 전면부 H=1.5~3.0m, L=49m
- 진입부 H=0.5~1.5m, L=71m</td><td>원안가결</td><td>‘20.08.10</td></tr>
</table>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제180호 여주 신륵사 조사당	경기 여주 (ㅇㅇㅇ)	□ 국고보조사업(신륵사 설법당 건립) 검토 (변경5차) ㅇ 사업명 : 여주 신륵사 설법당 건립 실시설계 ㅇ 사업지침 :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정 위치에 적정규모로 설법당 건립을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ㅇ 사업예산 : 150백만원(2018년 예산) (국비 105백만원, 지방비 45백만원) ㅇ 설계내용 : 설법당 건립(변경없음) - 위치 : 범종각 좌측(변경없음) - 면적 : 316.80㎡(변경없음) - 층수 : 지하1층(변경없음) - 최고높이 : 4.1m(변경없음) - 양식 : 한식목구조+철근콘크리트조(변경없음) ※ 변경사항 : 신법당 건립으로 변화되는 차량 진입 경사로 위치 조정(기존 진입계단 좌측(4m*8.5m)에서 우측(4m*13.6m)으로 변경)	원안가결	'20.08.10
보물 제180호 여주 신륵사 조사당	경기 여주 (ㅇㅇㅇ)	□ 천송~신남간 도로 확·포장 공사 ㅇ 위치 : 여주시 신륵사로 78 일원1 * 제3구역(보호구역에서 432m 이격) ㅇ 사업내용 : 전체사업량 L=2.48㎞, 차로폭(2→4) <역사문화보존지역 구역 내> - 사업량 : L 0.22㎞, B=25.5m(4차로) ※ 공사물량 - 흙깎기 : 토사 3,910㎥, 리핑암 1,709㎥ - 흙쌓기(노체) : 93㎥ - 아스팔트포장 : 3,749㎡	원안가결	'20.08.10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국보 제41호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충북 청주 (○○○)	□ 관광종합안내소(가설건축물) 위치변경(2차) ○ 위치 : 청주시 상당구 성안로59번길 15 일원 * 보호구역 내 ※ 2020.6.8. 자체검토회의 결과 : 부결(역사문화경관 저해) ○ 사업내용 - 시설규모 : 6.25㎡(가로 2.5m*세로 2.5m) - 층수/최고높이 : 1층/3.0m ※ 변경사항 :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외부색상 조정	조건부가결 (기 설치되어 있는 문화관광 라운지 옆으로 사업위치 조정 시행)	'20.07.27
보물 제252호 포항 보경사 원진국사비	경북 포항 (○○○)	□ 계류보전 사업 ○ 위치 : 포항시 송라면 중산리 산101-1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20m 이격) ○ 사업내용 : 계류보전 사업 - 토공 : 토사절취665㎥), 암절취(17㎥), 성토(109㎥), 토사터파기(126㎥), 암터파기(116㎥), 잔토처리(541㎥) - 구조물공 : 돌골막이1(7개소), 돌골막이2(1개소), 계간수로1(172.0m), 계간수로2(14.0m), 계간수로3(15.0m), PC암거수로(3.6m), PC암거수로2(4.0m) ※ 현지조사(20.06.03) 문화재위원 ○○○ - 사찰 경내로의 침출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됨 - 현재의 지형과 주변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	조건부가결 (현지조사 후 보완 제출된 설계도서대로 시행)	'20.08.03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제257호 공주 갑사 승탑	충남 공주 (○○○)	□ 템플스테이 전용관 건립(변경허가) ○ 위치 : 공주시 계룡면 죽장리 산47-1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250m 이격) ○ 사업내용 - 석축 추가 · 가형 석축: H=1.0~3.5m, L=33.0m · 나형 석축: H=1.3m, L=23.0m · 다형 석축: H=1.0m, L=25.0m * '19년 제5차 문화재위원회 결과 조건부 가결 - 터파기 시 관계전문가 입회, 건물 기단 높이 조정 * '19년 7월 1차 자체검토회의 결과 원안가결 - 대지면적 : 1,182.85㎡ - 건축(연)면적 : · 전용1관 107.73㎡ · 전용2관 76.95㎡ - 규모 : · 전용1관 : 7칸*3칸 · 전용2관 : 5칸*3칸 - 높이 : · 전용1관 : 6.76m · 전용2관 : 6.68m - 구조/지붕 : 한식목구조/팔작지붕	조건부가결 (석축 최고 높이를 2.9m 이내로 할 것)	'20.08.10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제115호 안동 이천동 마애여래입상	경북 안동 (○○○)	□ 전통문화공원 조성사업 ○ 위치 : 안동시 이천동 산2번지 일원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165m 이격) ○ 사업내용 : 전통문화공원 조성사업 - 이동식 화장실 설치 : 11m*3m*3m - 디자인형 울타리 : 0.2m*0.65m(420m) - 안내판 : 종합안내판(2개소), 방향안내판(3개소), 주의안내판(4개소) 등 - 경관조명 설치 ・꽃밭조명 7개소(230개) ・LED조명 : 5개 종류, 84개 - 옥외용 벤치 : 6개소(2.6m*0.792m, 6개소) - 식재 : 산철쭉(0.3m*0.3m, 1,080주) - 자연석 판석포장 : T=50mm, 잔디줄눈 10㎡ - 투수블록포장 : T=60mm, 128㎡ - 점자블록 : 0.3m*0.3m, 107개	조건부가결 (문화재청에서 작성된 '사례로 보는 문화재 안내문안 작성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시행)	'20.08.10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국보 제15호 안동 봉정사 극락전	경북 안동 (○ ○ ○)	□ 요사채 주변 담장보수 공사 ○ 위치 : 안동시 서후면 봉정사길 222 *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담장보수 공사 - 토석담장 해체/설치 : L=41.4m ·'1'구간 담장 해체/설치(L=3.1m, H=1.m) ·'2'구간 담장 해체/설치(L=2.0m, H=1.6m) ·'3'구간 담장 해체/설치(L=2.3m, H=1.74m) ·'4'구간 담장 해체/설치(L=4.6m, H=1.34~2.04m) ·'5'구간 담장 해체/설치(L=0.6m, H=1.41~1.50m) ·'6'구간 담장 해체/설치(L=6.4m, H=1.51~2.95m) ·'7'구간 담장 해체/설치(L=5.4m, H=2.48~2.78m) ·'8'구간 담장 해체/설치(L=4.3m, H=1.69~2.87m) ·'9'구간 담장 해체/설치(L=4.0m, H=1.69m) ·'10'구간 담장 해체/설치(L=8.0m, H=1.69m) ·'11'구간 담장 해체/설치(L=0.7m, H=1.69m) - 토석담장 철거 : L=6.5m ·'가'구간 담장 철거(L=3.3m, H=1.69m) ·'나'구간 담장 철거(L=3.2m, H=1.69m)	조건부가결 (석축부분은 기존 쌓기법을 유지하여 시행할 것)	'20.08.10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제1338호 옥천 용암사 동·서 삼층석탑	충북 옥천 (○○○)	□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 ○ 위치 : 옥천군 옥천읍 산청리 산51-1 * 보호구역 및 제1구역 내 ○ 사업내용 - 피해목 제거 : 0.7ha, 197본 ※ 주요공정 : 선목 제거(사찰과 협의 후 진행) - 이격거리(목재 건물에서 20~25m 거리) 제거 : B=15.m, 0.5ha (ha당 제거량 860본, 재적 및 본수대비 100%) ※ 주요공정 : 침엽수 모두베기 벌채, 혼합림은 침엽수만 모두 벌채(활엽수만 남김) - 공익림가꾸기(25m이상) : 3.5ha (ha당 제거량 800본, 잔존본수 950본 재적대비 35.74%, 본수대비 45.71% 작업) ※ 주요공정 : 침엽수, 활엽수 등 모든 수종 정리	조건부가결 (문화재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후 시행)	'20.08.10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제1307호 고흥 능가사 대웅전	전남 고흥 (○○○)	□ 농어촌도로(311호선) 확포장공사 ○ 위치 : 고흥군 점암면 한동장터길 79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160m 이격) ○ 사업내용 : 농어촌도로(2차로) 확장 - 총연장 : 1.5㎞(문화재 구간 0.5㎞) - 도로폭 : 5.5 ~ 9.3m(문화재 구간 9.3m) <문화재구간 사업량> - 토공 : 흙깍기 7,143㎥, 흙쌓기 1,943㎥, 사토 6,262㎥, 사면보호 2,940㎥ - 포장공 : 아스콘 포장 2,871㎡, 보도 포장 645㎡, 콘크리트 포장 78㎡ - 구조물공 : 돌쌓기(h=2.5m) 14m - 배수공 : L형측구(h=0.15) 460m J/U형측구(0.5*0.5*1.2) 71m J/U형측구(0.6*0.6*1.2) 255m J/U형측구(0.7*0.7*1.2) 89m J/U형측구(0.8*0.8*1.2) 53m 산마루 측구 45.m 횡배수관(D800mm) 2개소/25m 등	부결 (역사문화경관 저해 - 절토량 과다)	'20.07.27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제1346호 장성 백양사 소요대사탑	전남 장성 (○○○)	□ 내장산 국립공원 탐방로 개선공사 ○ 위치 :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 백양사 방향 * 제1구역(문화재에서 20m 이격) ○ 사업내용 : 진입도로 주변 탐방로 개선 1. 데크로드 추가 A=4.5㎡, 기초터파기 0.225㎡ 2. 데크로드설치(신규) A=60.35㎡, 난간(H=1.3m) 설치 L=40m, 기초터파기 6.41㎡ 3. 데크로드설치(신규) A=85.6㎡, 기초터파기 5.8㎡ 4. 지형복원 론샌백(2단) 설치 86m 5. 데크로드설치(신규) A=87㎡, 기초터파기 5.9㎡ 6. 데크계단(목재스탠드) 설치 1식 7. 데크로드 추가 A=6.75㎡, 난간(H=1.3m) 설치 L=7.24m 기초터파기 0.375㎡ 8. 로프난간 L=1,872m, 기초터파기 61.15㎡ 9. 데크로드 추가 A=21.96㎡, 기초터파기 1.5㎡ 10. 로프난간 L=912m, 기초터파기 29.79㎡ 11. 기존 데크로드 정비 A=37.4㎡ 12. 기존 목교 정비 1식	부결 (역사문화경관 저해)	'20.07.27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제290호 고창 선운사 대웅전 및 보물 제2065호 고창 선운사 만세루	전북 고창 (○○○)	□ 선운사 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계 복원사업 ○ 위치 :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532-4번지 일원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20m 이격) ○ 사업내용 : 은행나무 군락지 휴게공간 조성 - 면적 : 약16,530㎡ - 조경공 : 은행나무 전정 138주, 은행나무 식재 9주, 단풍나무 식재 73주 등 - 토공 : 흙깎기 110㎥, 흙쌓기 959㎥, 표토제거 5,944㎥, 노면정리 6,191㎥ - 포장공 : 경화흙(마사토) 포장 778㎡, 쇄석포장 135㎡, 자연석판석포장 138㎡, 화강석블록 포장 382㎡, 건강 지압로 98㎡, - 기타 : 팔각정자 1개소, 등의자 15개소, 세족시설 1개소, 야외테이블 7개소, 수목플랜터 앉음벽 4개소 등	부결 (역사문화경관 저해)	‘20.07.27
국보 제304호 여수 진남관	전남 여수 (○○○)	□ 전라좌수영 동헌~여수공고 도로확장 공사 ○ 위치 : 여수시 군자동 438번지 일원 * 제2구역(보호구역에서 88m 이격) ○ 사업내용 : 도로확장 B=8m, L=81m - 토공 : 흙깎기 54㎥, 흙쌓기 47㎥, 사토 59㎥ - 포장공 : 아스콘(표층)포장 951㎡, 보도포장 58㎡ - 배수공 : U형측구(0.3*0.4) L=8m, U형측구(0.6*0.6) L=79m, 연결관(D450mm) L=5m 등 - 기타 : L형옹벽 18.5m 등	부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일괄 현상변경 검토 필요)	‘20.07.27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제223호 철원 도피안사 삼층석탑	강원 철원 (○○○)	□ 창고시설 신축 ○ 위치 :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431-8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236m 이격) ○ 사업내용 : 창고 신축 및 부지조성 - 건축규모 : 창고 3동, 지상 1층 - 대지면적 : 5,044㎡ - 건축면적/연면적 : 590㎡ (각 200㎡, 195㎡, 195㎡) - 높이/구조 : 10.0m/일반철골구조 - 부지조성 · 성토 1,604㎥ · 우수받이 6EA, 우수관로 70m · 차폐수목(h=0.8~1.1m) 17주	부결 (역사문화 경관 저해)	'20.07.27
보물 제16호 충주 억정사지 대지국사탑비, 보물 제17호 충주 정토사지 법경대사탑비, 보물 제658호 충주 청룡사지 보각국사탑비	충북 충주 (○○○)	□ 국가지정문화재 탁본 ○ 위치 : 충주시 엄정면 괴동리 360-1 외 2개소 ○ 내용 : 습식탁본 ○ 세부수행계획 - 탑비정비 → 비면 비솔질 - 탁본지 붙이고 물솔질(탁본지 안쪽으로 먹물침투방지용 지류 덧댐) - 마른헝겊 물기제거 - 비면 솔방망지질 → 좁쌀 솔방망이질 - 마른 후 탁본지 떼어내고 탑비 이상유무 점검 및 주변 정비 ○ 목적 : 충주지역 문화재 사진전 및 학술대회 자료 활용	부결 (문화재 훼손 우려)	'20.08.10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접수 9명